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월간 우리문화 · 2002년 3월호 (통권160호) · 등록번호: 마-02746(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2002 **3**
ISSN 1599-4236

우리 문화

2002 · 3

2002년 3월호(제16권 2호 통권 160호)
 등록 / 마 02746(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02-704-2311~3
 FAX / 02-704-2377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겸 편집인 / 李 秀 洪
 사무총장 / 安 辰 洙
 기획편집 / 컬처플러스(02-2264-9028)
 인쇄제작 / 크리홍보(주)(02-737-5377)
 발행일 / 2002년 3월 1일
 정가 / 3,000원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산에들에 푸릇푸릇 새싹이 돋고 울긋불긋
 꽃망울이 터칩니다.
 봄치녀처럼 오솔길을 걷고 싶습니다.
 따뜻한 고향 찾는 제비를 숨바꼭질하고, 오
 솔길은 기다리는 마음에 백지처럼 비어있
 습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진웅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한국 출판미술협회 운영위원.
 국제 어린이 도서협회의 회원.
 1988년부터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17 ◆ 고향이 좋다⑥-공주시



28 ◆ 이사람



- | | |
|--|--------------------|
| 2 ◆ 날줄씨줄 · 우리는 文化國民인가 | 차범석 |
| 2 ◆ 특별기고 · 2001 지역문화의 해를 보내며 | 이종한 |
| 8 ◆ 문화인물 · 김환기(2월) · 이상재(3월) | 편집부 |
| 9 ◆ 지역문화살리기① · 北村 보존, 市民 힘 보태야 | 김홍남 |
| 12 ◆ 발언대 · 월드컵 문화행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김치곤 |
| 14 ◆ 우리문화논단 · 지방의 문화유적지 개발방안 | 김홍운 |
| 17 ◆ 고향이 좋다⑥ · 백제의 고도 '공주' | 강민철 |
| 25 ◆ 동정 · 이수홍회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 받아 | 편집부 |
| 28 ◆ 이사람 · "한국장인의 예술혼 웹기술에 담아 전세계에 알리겠다" | 편집부 |
| 30 ◆ 축제 ·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2002 | 강민철 |
| 33 ◆ 전통의 멋과 맛 · 통과례와 음식차리기 | 류장수 |
| 36 ◆ 문화포럼 · 문화기획과 문화사업, 지방발전
지역문화정책과 지역주민의 갈등과 해소
문화관광마케팅에의 접근전략 | 툼오리건
강신표
이봉구 |
| 42 ◆ 2002지역문화행정 · 제주에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워크샵 | 편집부 |
| 50 ◆ 이달의 세시풍속 · 머슴날/영등굿/삼짇날/한식날 | 박후식 |
| 54 ◆ 우리문화 다시 보기 · 한복 | 편집부 |
| 56 ◆ 생활속의 지혜 · 된장음식 먹으면 니코틴 '해독' | 편집부 |
| 58 ◆ 대중문화 · 마초세계에 둘러싸인 두여자, 투견장에서 벌어지는 연쇄 강탈 | 편집부 |
| 60 ◆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왜 산전을 보호해야 하는가? | 편집부 |
| 62 ◆ 지역문화 뉴스 · 전국문화원연합회 2002년도 사업확정 등 | 편집부 |
| 68 ◆ 오피북 · 한국버루의 문화예술적 성향(性向)에 대한 고찰 | 편집부 |
| 74 ◆ 신간안내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년 등 | 편집부 |
| 78 ◆ 문화원 네트워크 · 전국에 214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 편집부 |

우리는 文化國民인가



차 범 석 |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 극작가

일본에서 잘 알려진 극작가이자 연출가이며 영문학자인 ‘후쿠다 쓰네히로(福田恒存)’가 쓴 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문화의 날’이니, ‘문화의 달’이니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매우 신랄한 사회 비평적인 글이다. 모르면 몰라도 그것은 전후 일본의 급진적인 경제 고도성장과 발을 맞춰 이제는 문화 대국으로서도 국제 무대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국가적 의지이자 자아 의식에서 비롯되었으리라는 짐작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쿠다 쓰네히로의 지론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겉치레요, 헛구호일 뿐 국민 전체의 생활 환경이나 문화 향유도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지적한 점이 흥미로웠다. 바꾸어 말하자면, ‘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이 없었을 때 일본에는 문화가 없었던 가라는 역설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유 문화푸대접은 패배 의식의 다른 표현

나는 평소에 그가 지적인 그 ‘겉치레적’이며,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동감한 편이다. 그것은 우리는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민족이라는 자기 열등감과 피해 의식을 은폐하려는 잠재력도 그곳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찌 일본만의 일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란 대체적으로 외래 문화에 접근 또는 동화되는 의식부터 먼저 내세웠다. 일본은 명치유신이 되자 재빠르게 개화 정책을 시행하며 서양 문화의 도입을 꿈꾸었고, 국제적으로 대등한 대우와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래 문화에 친숙하는 일이 첩경이라고 여겼다. 언어 · 음식 · 의복 · 교육 · 예술... 어느것 하나 서양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문화인 · 문화주택 · 문화산업 · 문화 공간 등은 여지없이 서양식을 의미했으며, 고유 문화는 푸대접을 받았다. 그것은 다름아닌 패배 의식에서 맴돌고 말았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내세우는 주장의 저변 심리와 일본의 그것과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 하고 자주 내 자신과 주변을 눈여겨보는 버릇이 있다.

문화라는 말의 개념에는 사람에 따라 그 주장을 달리 한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나름대로 두 가지 면에서 문화를 존중하고 또 주장한다. 그 하나는 ‘차별화된 문화’요, 다른 하나는 ‘조화로운 문화’이다. 전자는 문화를 창조하는 측에서이고, 후자는 그것을 향유하는 국민층에서의 이야기이다.

‘남의 것 선호하는 습성’ 간과 못 할 일

일본이 명치유신을 맞자 너도 나도 서양 문화의 흡수, 접근, 모방에 혈안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앞서 간다는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문화나 고유 문화는 도외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다반사로 여겼다.

그래서 일상 생활의 의식주(衣食住)에서도 ‘하쿠라이(舶來) 문화’가 판을 쳤다. 하쿠라이란 이를테면 서양에서 들어온 물건이 아니면 직식이 안 풀리는 습성이다. 그 하쿠라이 숭배열은 일제하에 우리 나라에도 들어와 이른바 개화인이나 지식인 모든 가치 기준을 그 외래 문화에다 두었다.

적지 않은 일본 유학생과 일부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물고 온 그 배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우리 고유 문화와 전통 문화를 무시하거나 배척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우리의 민속(民俗) 가운데서 무속(巫俗)을 첫 손으로 꼽지만 그것도 일제 시대에는 미신(迷信)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숭한 박해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우기며 총독부가 우리 전통 문화를 말살시켰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정서 자체가 내것을 밖으로 내몰고 남의 것을 선호하는 습성을 뿌리 깊게 품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 못 할 일이다.

그것이 일제 식민지 아래서 살아남을 길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 것을 업신여기는 못된 버릇은 오래 전부터 우리 의식속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부인 못 할 것이다.

그 증거로 1945년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우리가 살아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의 힘보다는 외세에 붙어 사는 기생성(寄生性)이나 노예 근성을 그 누가 부인할 것인가.

문화의 척도를 서양의 잣대로 재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백지화를 되풀이했던 우리의 누더기 문화를 그 누가 부인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문화는 자기 모습을 찾는 일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은 일부 계층이었을 뿐, 대다수의 국민이나 지역 사회는 도외시했던 사실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문화 예술의 중앙 집권 제도는 지금까지도 고질화된 부끄러운 유산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구 분산책을 외치고 중앙과 지역 사회 간의 평준화를 계획했지만 결과는 재언할 필요조차 없다. 모든 예술 활동이 서울에서만 이루어지고 예술가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문화의 혜택을 받거나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은 대다수의 서울 사람이요, 중산층 이상의 여유 있는 계층이다. 이런 분석이 마치 정치적으로 계급 투쟁이나 무산 대중의 옹호라고 오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다.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문화 행사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천편일률적인 편성이요, 진행일 뿐 그 지역의 개성이나 특성을 살리려는 의도나 흔적을 찾아보기란 힘들다. 그것들은 모두가 서울쪽에서 흘러든 찌꺼기요, 또 근원을 따지면 외국 것의 모방임을 우리는 부인 못 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궁극적으로 문화는 자기 모습을 찾는 일이요,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삶의 집체일 수밖에 없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은 내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서울이건 지역 사회건 누구나 향유하는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회라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폭넓게 자리잡아 가는 것이 문화가 아닐런지 모르겠다.

‘문화의 달’에 문화를 돌아보는 심사는 가난한 사람에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 소박성이요, 자연스러움이지 결코 관(官)이 명령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일반적인 행사는 문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할 뿐이다.

관이 앞장서는 문화예술의 행사는 우선 개성이나 창의성이 없다. 관은 지원만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는 대통령 소신은 해마다 문화의 달 행사 때나 공식석상에서 피력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게 아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장에 가보면 도지사, 시장, 교육감, 국회의원, 경찰서장, 군수가 터줏대감처럼 앉아있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예술가들이나 중앙에서 모셔온 예술계 인사들은 한구석에 물러나 앉은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민주주의가 관주(官主)주의로 전락하는 한 문화는 그들의 치마폭에 깔려있지 일반 서민들 차지가 되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밝아야 할 문화계가 뜻하지 않은 장애물 때문에 위축되어간다는 소리가 높다. 그것은 지방자치회의의 무식이나 횡포 앞에서 힘없는 문화계는 울며 겨자 먹기라는 현지사람들의 고심을 나눈 수 없이 듣고 보았다.

그들은 잘못된 권위주의와 치적(治績)에 휘말려 있을뿐 그 지역사회의 실정이나 독자성 따위는 아랑곳 없다. 그러므로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진 문화행사가 호평을 받았거나 언론에 보도되면 너도 나도 덩달아 뒷북을 치는 실정을 우리는 보았다.

특히 공연예술의 경우는 웬 ‘국제적’ 행사가 그리도 많은지 뜻있는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기 여러 해가 흘렀다. 국제영화제, 국제연극제, 국제무용제, 인형극제, 도자기제 무슨 엑스포... 적지않은 예산과 인력을 소모했지만 대부분이 일과성 행사요 이벤트로 끝나버린 그

수많은 문화사업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던가. 명성을 날리고 치적을 남겨서 차기 선거에 또 다시 도편하려는 어리숙한 야망 앞에 민심은 돌아서고 문화는 껍데기로 변하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런 예산은 아껴서 문학관, 미술관을 짓고 그 고장 출신의 예술가의 기념관이나 동상이라도 건립하는게 훨씬 지방문화를 살찌게 한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아니다. 모르는게 아니라 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문화예술은 아무런 매력도 실효도 없기 때문이다. 그저 세상을 놀라게 할 끔직한 행사로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다면 그것은 금메달감이라고 생각하는 알뜰한 속물주의가 이 땅의 문화를 더 영양실조로 만든 꼴이다.

문화는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다. 그러기에 문화에는 샘플이 없다. 그것은 그 나라의 고유 의 것이며 그 민족의 생활에서 우리나라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차별성을 지녔을 때만이 생명이 있다. 우리가 서양문화를 배운다는 것을 우리의 차별성을 확고히 알기 위해서이지 그것에 닮아가는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문화나 메소포타미아 문화나 중국문화를 어떻게 닮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그들의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분명히 하되 우리의 생활과 밀착되었을 때 그것은 비로소 문화로 정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서양문화를 닮아가는가에 신경을 쓰고 있다. 내것은 없어도 좋으니 우선 눈에 띄는 것만을 쫓는 꼴이다. 그 한가지 반증이 청소년들의 색깔 머리 유행병이다.

단순한 유행심리로 보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한국사람이 아니라도 좋다는 잠재의식이 그런 꼴로 나타났으니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문화의 달에 문화를 생각하는 마음은 박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 눈길을 돌리는 겸손과 이성이라야 한다. 

2001 지역문화의 해를 보내며



이 중 한 |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 · 한국문화복지협의회장

‘2001 지역문화의 해’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무엇을 하는가였다. 이 질문에서 무엇이 특히 어떤 이벤트나 또는 어떤 획기적 사업이 있느냐를 의미했다. 이 대답을 추진위에서는 상당히 간결하게 정리했다. 그것은 좀 허무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였다. 이 대답을 들을 때 여러사람들이 약간은 당황하고 막연한 표정을 짓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무슨 무슨 해라는 것이 원래 딱 떨어지는 행사나 사업의 수행을 뜻하지 않아왔다. 그해가 정한 주제에 대해 평상시의 평균적인 관심보다 더 집중적으로 생각의 깊이를 다듬어 보자는 목표 이상의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모양이다. 유엔도 해마다 무슨무슨 해를 정해오고 있다. 독서의 해, 노인의 해, 장애인의 해들이 90년대에 했던 것이고 최근에는 자원봉사의 해도 진행했다. 그렇다고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어느 한해에 그 주제에 대한 만사의 척결을 실행한 일은 없다. 유엔은 단지 그러한 계기를 선포하는 것 뿐이다. 그러면 여러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그 주제에 대해 앞으로 해야할 일들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해 보고, 가능하다면 일부의 행동계획도 세워보게 되는 것이다.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는 바로 이러한 일의 순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따라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은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생각을 토로하게 하고 또 이 생각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도단위로 50명에서 70명 규모의 지역인사들이 모여 대화를 갖도록 하는 장을 마련했는데, 이 모임은 계속해서 언제나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평가의 반응 또한 아주 간결했다. “그리고보니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모여 본 적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것이었다. 지역문화인사든, 지역문화담당 공무원이든간에 ‘지역문화’를 말하기는 했지만 각자가 자신의 의견만을 가지고 마치 낙도에 사는 외로움 같은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낙도를 하나의 육지로 만드는데 지역문화의 해가 연결한 사람의 수는 아마도 1천명은 되지 않을까 한다. 1천명이 적다면 물론 할말은 없다. 그러나 1천명은 현 국회의원 정

수의 3.7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추진위가 한 일은 지역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었다. 제도속에서 좀처럼 작은 지원이나마 얻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들어내어 격려하고 보조하는 시발점을 만든 일과,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성의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했던 컨설팅 작업이 그 예일 수 있다.

이역시 불꽃놀이처럼 휘황한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 해보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을 얼마쯤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생각하고 하던 일이 결코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무엇인가를 한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들도 족히 1천명은 될 것이다.

이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 공감대를 이룬 몇가지 사항이 있다. 이 사항들 또한 지역문화의 해를 통한 결실인지 모른다.

첫째로 지역문화의 해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던 지역문화의 특수성이 지금도 나날이 와해되거나 소실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었다. 우리만 가진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존하자는 일이 너무 힘든 과제가 되어 있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역문화의 특수성은 이에 관심을 갖는 몇 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다.

지역문화는 지역주민의 삶과 의식의 총체임으로 특수성의 유지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에 만약 주민이 모두 현대적 생활의 편이성만을 지지한다면, 그 것이 바로 새로운 지역문화의 특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까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선택이 앞으로 1백년이나 2백년뒤의 또 하나의 전통문화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라져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해야겠다.

둘째로 지역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창조적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감각

적으로는 이런저런 문화공간이 상당수 건립되었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 공간들은 중도시 이상에 있을뿐 군단위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 또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간들의 내부는 텅 비어 있다. 보기 좋은 외벽을 가진 무대장치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이 실질적인 문화창조적 환경이나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고 찾기가 어려웠다. 이 과제가 컨설팅의 주된 의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관점의 문제들도 있었다. 대부분 재정적 자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질 것도 없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정적 지원체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투입되었다고 해서, 문화창조의 실질이 되는 문화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정되거나 유통되는 것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욕구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 시대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문화적 생산이 경제적으로도 중시되는 시대이다. 그래서 문화산업, 문화자본 같은 용어가 일상어가 되어 있다. 그러나 브리디의 같은 프랑스의 사상가는 그것을 경제적 재화로 보지 않는다. 그는 어느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가진 문화욕구의 총량이 가장 분명한 '문화자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지역문화 역시, 지역주민이 가진 지역문화적 욕구의 총량을 검색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지역문화의 해는 보다 많이 피상적 이론들만의 논점을 확대했는지도 모른다.

세번째는 매우 합의가 잘 이루어졌던 의제이다. 즉 왜 우리는 비슷비슷한 축제형 행사를 이다지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자성적 비판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모두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비슷비슷한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분석도 어느 정도는 진전되었다. 결국 어느 거점에서 내놓든 지원금만으로 이루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정적 지원금을 절차상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고, 이 편리함이 결과적으로 행사를 규격화·형

식화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축제 역시 진정으로 직접 참여하는 주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도 많은 축제에서 주민들은 구경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축제는 축제라는 이름의 거리 공연물 이상의 것일 수가 없다.

그 나름대로 곳곳에 새로운 문화만들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화유산을 다듬고 복원하려는 시도도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접근은 현대적 개발의식과 언제나 부딪히고 있음을 또한 간과하기 어려웠다.

축제를 비롯한 삶의 특수성화는 특정 거점만의 제한된 특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군단위에서도 어느 거리에선가 그 지역만이 가진 일상생활의 분위기가 하나씩은 존재하고 있어야 지역문화특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생활중심거리는 확일화 되어 있다. 이것이 축제의 똑같음에 대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똑같음일 수 있다.

지역문화의 해를 결산하는 자리에 2백50여명의 문화계 리더들이 모여 다시한번 이 이야기들을 반복해 보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역문화는 이제부터라는 새로운 선언문도 만들어 보았다(이 선언문은 별도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다시 옮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언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역문화라는 것이 특정하게 있는 어떤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 한다면 이는 곧 어디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의 문화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문화적 창조력에 눈점이 모아져야 한다. 우리의 일상적 삶은 과연 문화적인가. 그리고 창조적인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해가 이런저런 모임을 아예 하지 않았던 지역이 있었다. 처음부터 대도시지역은 지역문화의 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었다. 이 원칙은 별로 반론을 받지도 않았다. 실제로 모든 지역에서 우리의 문화는 서울에 다 모여 있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도시분리의 원칙은 사실상 옳은 것은 아니었다. 도시는 도시대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대도시에서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연구과제로 부탁했다. 그 연구결과가 연말에 나왔다. 예측했던 대로 대도시에서의 지역단위(구단위)에서도 문화의 빈곤성은 군단위와 별로 다를게 없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그 상황은 역시 같을 수밖에 없다. 문화유산에서는 오히려 대도시가 더 크게 유산의 유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적 문화도시를 창조하고 있는가. 누구도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문화는 오늘날 새로운 거대과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해 그 어느 시대보다 세계가 하나로 연계돼 있는 현실에서 한 국가는 세계속에서 보다 큰 지역문화의 단위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은 한국이라는 세계속의 한 지역문화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지역문화의 해는 크게 두 항목의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도시에서의 지역문화와 세계속에서의 한국문화 특수성에 관한 논의를 성숙시키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해 둘 것이 있다. 관광문화라는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문화의 관점이 있다. 이 관점에서는 지역문화가 마치 축제를 한두개 가지고 먹거리만 있으면 발전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가 관광하며 보러 다니는 지역문화는 단순한 표면이 아니다. 오랜 전통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화는 일시적 행사나, 이곳저곳에서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대적 삶의 똑같은 한 거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관점 역시 지역문화의 해가 주된 논점으로 제기해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간 우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그 생각의 양이 그 어느해보다 많고 높고 깊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무엇인가를 했던 것이다. 

2월의 문화인물

김환기(樹話 金煥基 : 1913~1974) : 서양화가. 우리나라 모더니즘의 제1세대. 한국적 정서를 양식화한 독특한 예술세계를 확립. 주요작품 〈론도〉 〈산월〉 등.

1913년 전남 신안에서 출생한 김환기는 일찍이 일본 대학 예술학부에 유학해 1930년대 후반 일본화단의 전위적 단체인 자유미술가협회전 창립에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인 모더니즘 운동을 전개했다. 해방 후 1947년에는 유영국·이규상과 더불어 신사실파를 결성해 모더니즘의 계보를 형성하는 한편 서울대학·홍익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보였다.

1956년에는 프랑스로 진출해 약 3년간 체류했으며 1959년 귀국 후는 홍익미대 학장·미술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미술계 중심에서 활동했다.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그 해 미국 뉴욕에 정착한 이후 1974년 작고하기까지 뉴욕 화단에서 활동했다.

김환기의 예술세계는 초기인 동경시대와 중기인 서울·파리시대, 그리고 후기인 뉴욕시대로 나누어진다. 초기인 동경시대는 입체파·구성파의 영향을 거쳐 추상 미술에 도달했으며 해방 후는 추상적 바탕에 자연적 이미지를 굴절시킨 독특한 화풍을 펼쳐 보였다. 특히 이 시기 김환기가 많이 다룬 소재는 달·산·항아리·학·매화 등 고유한 정서를 담은 것이었다. 1963년 뉴욕에 정착하면서 김환기의 예술은 또 다른 변신을 보인다.

김환기의 뉴욕시대작은 1970년 한국미술대상전에 출품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었고 그의 뉴욕에서의 변신을 확인시켜 주었다. 70년을 기점으로 그의 의욕적인 창작의지는 대폭의 집화들을 다량 제작해 내었다. 김환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은 만년에 해당되는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어 나왔다. **문**



3월의 문화인물

이상재(月南 李商在 : 1850~1927) : 독립운동가. 시민운동가. 종교인. 언론인. YMCA에서 민족운동 전개. 일제치하 해학과 기지로 한국인의 정신고양.

1850년 충남 서산에서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16대 손으로 출생한 이상재는 1881년 박정양이 이끄는 신사 유람단원으로 일본에 가면서부터 정치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된다.

특히 그는 개화 독립운동에 앞장서 1897년부터 독립 협회를 윤치호와 같은 여러 신진인사들과 함께 조직하고, 토론회와 만민공동회를 통해 주권 사수를 외쳤다. 이로 인해 3년여의 옥고를 치르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일생의 일대 전환기가 된다. 거기서 그는 선교사들이 차입한 기독교 서적을 읽고, 마침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출옥이후 그는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에 들어가 한국인 지도자로 그 일생을 보내고, 만년에는 조선일보 사장으로 일하며, 동시에 1927년 2월 좌우 일치의 신간회를 조직할 때 그 회장으로 피선된다. 하지만 한 달 후인 1927년 3월에 세상을 떠난다.

그는 고도의 해학(諧謔)으로 일제 압제하의 우리 겨레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어 후련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지사이기도 했다. 그는 일제 고관, 가령 이등박문(伊藤博文)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신랄(辛辣)할 정도의 해학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공로 그리고 그의 가장 거대한 공적은 그가 서거하기 한달 전에 양단된 국내독립운동의 2대 계파

(사회주의 계와 민족주의 계)를 단일하게 묶는 신간회 회장을 맡았던 일이다.

그가 회장을 맡았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양대 계파가 다 같이 존경하고 추앙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상재, 그 사람밖에 없었다는 뜻이 된다. **문**



北村 보존, 市民 힘 보태야



김 홍 남 | 이화여대 교수·북촌문화포럼 대표

서울시민이 '북촌(北村)'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에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이 적어도 하나는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과거 수려한 자연 환경과 고도(古都)의 역사 경관을 갖고 있던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거주 외국인들이 '거대하고 볼품없는 도시' '매력이란 없는 도시' '발령을 피하고 싶은 도시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자연·역사경관이 훼손됐다. 그렇지만 외국인들도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서울을 둘러싼 산들, 한옥과 골목길이 그것이다. 이제 서울에서 이러한 한옥과 골목길의 정취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곳으로는 북촌 밖에 남아 있지 않다.

'문화'라는 말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바깥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문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깔본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무분별하게 아름다웠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은 사라지고,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책에만 남아 있다면 우리는 문화가 없

는 민족이 된다. 우리에게 현재 남아있는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과, 무관심과,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과 파괴를 견디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대외 외교에서 밀리고, 우리의 관광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화유적과 주변환경의 보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사실이 날이 갈수록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진정 이 나라 이 국민을 사랑하고 후세를 걱정하는 대통령이라면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뛰어 넘어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와 환경부는 건설교통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의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호법이 지자체의 조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국토가 난도질당하고 있다. 쌀 수급문제가 이미 이 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데도 농토를 확장하겠다고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 못할 갯벌을 대대적으로 매우고 있다. 도로공사는 끝도 없이 도로공사를 벌여야 하고, 수자원개발공사는 수없는 댐을 지어대야 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계속 주택을 건설해야

북촌

만 그 존립이유를 주장할 수 있고 배를 불릴 수 있다. 이들에게는 '문화유적의 보전' '자연환경의 보전'은 당치도 않는 헛소리일 뿐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외쳐된다.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 주택난을 해결하고 도로망을 개선하고, 갯벌을 매워 땅을 늘려주고, 물공급량을 늘리고 한데 무슨 이의가 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미 각 국은 바로라서, 개발의 이득을 몰라서, 고층아파트 대단지 건설이라는 노다지를 몰라서 지금까지 옛 도시들의 모습을 유지하고 전원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존하고 있던 말인가? 그런 논리라면 파리, 런던, 로마, 암스테르담, 뉴욕 등 대도시와 이들 도시의 바로 외곽부터 펼쳐지는 전원과 옛 마을들은 이미 다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소방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도로를 크게 내는 것 만이라면 베니스라는 도시는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을 돈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다른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문화선진국들의 국토계획·도시계획으로 부터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필히 배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책적이고 법제도적인 문제, 경제논리와 개발논리의 기승, '문화'를 악이용하는 정치인들, 쉽게 현실과 타협하는 문화행정가들, 정부부처간의 이기주의와 소통부재, 지방자치단체의 표발 다지기 대중요법, 문화행정의 비전문성, 반보존론자들의 반발과 시위, 사유재산권·점유권의 문제, 문화재 보수보존의 졸속처리와 부실감리, 시민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의식부족 등등 이러한 많은 갈등요소가 문화유산보존을 향한 길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기다리다 우리를 시험하고 위협한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는가?

북촌은 북한산의 지맥(地脈)인 북악의 밑자락, 창덕궁 서쪽과 경복궁 일대를 차지하는 조선시대의 양반촌이었다. 남산 밑의 남촌에는 청빈한 선비들이, 북촌에는 왕궁과 관아, 귀족과 권세 있는 양반들의 집들이 모여 있었다. 남촌은 오래 전 없어졌다. 최근 서울시가 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필동 옛 수도방위사령부 터에 민속촌 형식의 '남산골한옥마을'을 조성했으나 그것은 생명 없는 복제된 인공마을일 뿐이다. 1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 경주시에 도 옛 마을과 거리는 남아 있지 않고 여기저기 무리하게 새로 세운 기와건물들이 대부분 음식점업을 하면서 역사경관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칫하면 인사동의 실패를 되풀이하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살아있는 옛 마을을 찾고,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문화유산은 한 번 손실되면 다시는 원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문화유적과 주위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할 수가 없으므로 보호와 보존을 실천하는 한편 그 중요성을 가정과 사회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야만 한다.

북촌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급격한 한옥멸실 추세를 보여 1985년까지만 해도 한



옥이 1518동(55.1%)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2년 현재 약 850동 정도로 급감했다. 2000년 이후 멸실된 수만 해도 100여 동이나 되면서 북촌 고유의 전통 한옥경관과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북촌주민에게는 애환도 많다. 1983년부터 본격화된 제4종 집단 미관지구지정, 1984년 미관지구내 '특정구역 안의 건축제한'은 주민참여의 배제, 현실성의 결여 및 동결식 한옥보전 방식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불러왔고 특히 작은 규모의 한옥이 밀집한 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의 방치로 이어졌다.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심화되자 1991년 이후 규제완화가 시작되어 급기야는 규제일변도의 한옥보전정책에서 주민자율참여를 끌어내는 한옥등록제와 등록한옥지원대책을 작년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한옥매입을 시작했으나, 정작 규제와 무관심으로 심한 피해와 상처를 입은 지역들이 배제됨으로 인해 이들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북촌한옥주민들은 그들의 한을 보상할 만한 시기적절한 매입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의 강세를 기다리거나 한옥등록으로 북촌에 남아있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제 법적 규제에만 의존한 한옥보전의 시대는 지났다. 남은 것은 북촌을 정치 1번지의 중심 만이 아니라 서울의 주거희망 1번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기무사와 국군병원의 이전, 훼손된 창덕궁 서쪽 담의 복원, 훼손된 경복궁 담의 복원, 궁궐과 윤보선가 등 지정문화재의 주변환경과 경관 훼손방지, 쓰레기하치장들과 수거차들의 처리, 공용주차장과 공용정화조 등 공공시설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시급한 것은 소규모 한옥밀집지역 내의 진입로 신설과 도로망 구축, 일방통행로제도 도입과 삼청동 쪽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들의 개선, 중앙고교에 연결되는 재동길 정비, 북촌 내의 전선과 전신주의 지중화 등 총체적 북촌도로망의 마스터플랜 수립이다. 또 한편 한옥들 속에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등의 난립을 막기 위한 대책수립, 서울시가 벌려 온 북촌관련사업에 대한 평가, 길 바닥치장에만 급급한 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의 재평가, 북촌성격에 맞는 품위있는 문화컨텐츠화·자원화 방안의 모색 등이 있겠다.

북촌에는 1991년 이후 일부 주민들이 '종로북촌가꾸기회'를 결성해 북촌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다. 한편 북촌은 북촌이 좋아 모여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살고, 일하게 되면서 현대미술과 현대건축의 메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문화에는 시간의 단절이 없다. 북촌의 과거는 북촌의 현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북촌은 역사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접목해 북촌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실천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분기점에 와 있다. 북촌문화포럼은 북촌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이러한 많은 숙제들을 전문적인 연구와 토론과정을 통해 풀고 주민의 입장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현재의 주민이 더욱 만족하고 미래의 북촌주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북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위해 창립됐다. 

월드컵 문화행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김 치 곤 |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 예술총감독

FIFA 월드컵대회는 올림픽과 함께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하고자 1930년에 발의된 세계적 스포츠 축제이다. 그러나 축제 내용은 축구 경기와 문화행사가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관련행사는 회를 거듭할수록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 88 서울올림픽 때에는 문화올림픽을 표방하고 우리의 전통예술과 문화를 충 동원해서 한국의 존재와 독창적 민족 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는데 크게 성공했다. 그리고 근대 올림픽 100년 사상 최고 최상의 대회라는 격찬을 받는데도 크게 공헌 한 바 있다.

절호의한국 이미지제고 기회

2002년 월드컵대회는 200여 국가를 대표하는 축구팀들이 6개 대륙별로 3년여에 걸친 예선 경기를 펼쳐서 선발된 32개국 이 한국과 일본의 20개 도시에서 31일간 경기를 펼치게 된다. 대회를 운영하는 임원과 선수단 그리고 보도진만도 2만 6천명이나 된다. FIFA는 64회의 본선 경기를 420억 명이 TV를 통해 관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니 명실상부한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임에 틀

림없다.

우리가 월드컵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크다. 생산 유발효과 11조 4천억에,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5조3천억원인데다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40만명에 이를 것이니 외화 수입만도 6억 달러 이상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 이상으로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높아져서 얻게되는 반사적 이익은 비록 계량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지구촌이 단일 시장으로 통합된 무한 시장경쟁시대에 절대 우위의 경쟁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오늘의 세계 경제시대에 한 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는 곧 자국 상품의 브랜드 파워이자 품질의 신인도로 연계된다.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도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를 격상시키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또 한번의 기회가 온 것이다. 우리는 2002 월드컵이 갖는 문화적 의의를 통찰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직위원회 그리고 모든 문화예술단체들이 걱정하고도 조직적인 대응과 노력을 결집해서 알찬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월드컵대회의 문화적 의의와 대응

2002 월드컵이 갖는 문화적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로, 동양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대회이다. 지금까지는 4년 터울로 남북 미주와 유럽에서만 열리다가 21세기의 모두에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된다. 21세기는 동양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일부 구미학자들의 주장도 있었기에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많을 수 밖에 없다. 이 기회를 선용해 우리의 5천 년 역사를 알리고, 장구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발전을 거듭해 온 한 민족의 문화적 우수성과 보편성이 세계에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한국이 우수한 문화전통과 정체성을 지닌 국가임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양한 국내행사들을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문화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세계적 이벤트이다. 우리와 일본은 일의 대수(一衣帶水)로 가까운 이웃이긴 하지만 그동안은 불행했던 과거사로 인해 서로가 아주 먼 나라로 여기며 살아 왔다. 21세기의 모두에 월드컵의 공동 개최를 계기로 양국이 상생적 선린 우호국으로 변환되는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펼치는데 두 나라가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지역권역 내의 협력관계 또한 더욱 긴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가 금년을 '한일 양국 국민교류의 해'로 설정하고 100여 건에 달하는 사상 최다의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일 양국 국민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서 공존중영을 위한 전향적 협조 유대를 굳건히 구축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2002 월드컵은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10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국제적 행사이다.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이 세계 속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지방별로 특색 있는 멋과 맛을 과시하고, 푸근한 인정과 인심을 베풀어서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월드컵을 유치할 때 '한국에 서울 말고도 월드컵을 개최할 만한 도시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정도로 우리나라 도시는 아직도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다.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발굴해낸 다이나믹한 지방 고유의 민속놀이들을 세계적 관광 자원으로 내세우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의 문화권과 행정 구역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월드컵 개최 도시들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월드컵대회를 직접 주관하는 조직위원회도 공식행사로 개막 전야제와 개막식 문화프로그램을 우리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과 내용으로 정성들여 준비하고 있다. 



지방의 문화유적지 개발방안



김 홍 운 | 전 한양대학교 교수

1. 문화유적의 중요성

첨단 과학기술(High Technology)시대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사회는 대중관광을 보다 확산시켜 왔으며 관광의 체계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양면에서 다양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 현대는 문화개발의 시대이다. 급변하는 사회현상들은 새로운 가치추구에 대한 현대인의 이동성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가 붕괴되고 생활공간이 확대되는 현상은 인간의 가치관마저도 변화시켰고 사람들은 보다 고유하고 개성적인 문화활동을 원하고 있다. 즉 관광을 하는 이의 욕구는 단순한 유람과 휴양이 아닌 다양하고 폭넓은 연속체와 분광체의 특성을 가진 복잡한 체계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한편 이에 대응하는 공급면에서도 소극적인 최소한의 시설 및 편의제공이 아닌 다양한 관광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상업적인 이익과 결합하는 각종 관광 및 위락욕구를 창출하는 최대한의 공급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관광지 개발의 특징이라고 하면 스포츠단지, 레저단지, 주제공원, 위락공원 등 주로 인공시설을 대단위로 투입하는 개발형태를 들 수 있는 반면, 문화유적 등 전통문화에 대한 개발은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가 낮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에는 고유한 관광문화상품이 중요시되고 있다. 근대화·산업화가 서구화 일변도로 진행되면서 우리사회는 생활문화의 획일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문화 제국주의가 표면화되는 현상이며 문화 사대주의가 심화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문화의 관광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같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선진국가에서는 유적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나 각종 단체에서 그 진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유적’이란 협의로 볼 때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단체들이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있는 문화적 전통·장소·가치 등을 일컬으며, 광의로 보면 각 개인이 모두 다르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소속감이나 연속성을 뜻한다. 이는 현재 상황과 관련된 과거의 뿌리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유적이란 이러한 연속성과 소속감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산물인 것이다. 즉 유적지는 과거·현재·미래를 이어주는 유형의 연결체로서 일반 행락지와는 다른 것이다. 일반 행락지는 유행이 지나면 새로운 유형의 욕구에 부응하는 형태의 행락지로 대체되

는 단기적인 반응을 볼 수 있지만 유적자원은 유구한 역사에 기초한 관계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처분될 수 없는 것이다. 한 가정에서 가문이 중요시되듯이 한 국가나 지역의 유물·유적은 단순히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미래를 존재하게 하는 연속성의 개념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표현물인 문화유적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갖는 의미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가나 지역사회의 정체성으로서 해당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유물이나 유적은 오늘과 내일을 잇게 하는 정체성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자원으로서 기회제공이다. 조상의 얼과 정성이 담긴 문화유산은 현대인에게 커다란 교육적 가치를 갖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과 자라나는 2세들에게 과거의 실상은 溫故而之新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셋째, 지역경제를 재생시키는 근간으로서의 역할이다. 훌륭한 문화유산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며 관광의 훌륭한 대상이 된다. 이는 곧바로 지역의 방문과 소득 증대, 관련 산업의 진흥에 직결된다는 것으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문화관광의 대상지로서의 역할이다. 최근 관광산업을 소비성 사치 및 향락산업으로 운운하는 것은 불순한 관광자의 동기도 문제로 제기되지만, 그 이면에는 훌륭한 관광대상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문화유적은 이러한 면에서 기존 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물인 것이다. 또 과거의 관광은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시간과 경제적 사정의 호전으로 국민 누구나 관광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관광하면 우선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 등의 자연경관에 치중했으나 이제는 수준 높은 문화유적, 민속이 매력있는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2. 문화유적의 관리 및 개발방향

문화유적은 건전관광을 촉진시키는 매체로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폭넓은 교양과 정서를 제공해 준다는 중요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의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는 주요 관광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보호를 고려한)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도 유적관광은 성공적인 관광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정하고 있다. 1987년 영국의 관광수입은 1,115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노만 파울러 장관은 '유적의 최대 이용'이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유적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유적 - 그 잠재 가능성의 개발'이라는 표제 하에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영국관광공사(BTA)의 조사는 문화 유적이 우리의 최대 강점임을 보여 주고 있으며 유적의 보존작업이 제일 중요한 첫 단계 작업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 시장성 개발을 통해 관광 및 레저산업의 일환으로 되어야 하며 물론 이 과정에서 유적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1988년 9월 영국의 워윅대학에서 개최된 문화유적 연출 및 해석에 대한 제 2차 세계대회에서 나야라니 굽타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오랜 문명을 지닌 동시에 개발 도상국가이기도 한 인도에서

보호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검증하고 있는 관광자로 인해 일부 유적은 파손되었으며, 이에 대한 복원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문화유적 관리 및 개발의 첫 번째 작업은 보존작업이다. 지역 주민의 문화유적 보호정신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 물론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작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의 경관지 보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는 문화유적 특성을 고려하고 적당한 해석 및 연출 작업을 통한 관광 레저산업의 일환으로서의 시장성 개발이다. 관광개발과 보존에 있어서 그 어느 곳에 중점을 두던 간에 유적지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 유적지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다. 즉 유적지 내의 안내시설, 주차장,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은 꼭 있어야 할 필수시설이긴 하지만 획일적인 시설배치 및 입지는 고유의 문화유적지가 갖는 속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 유적지 내의 초현대식 기념품 상점 배치나 공중전화대 등을 설치한다면 기능만을 고려해 전체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된다. 철저한 고증작업을 통한 유적에 대한 해석 및 연출 작업은 문화유적 관리와 개발에 대한 성공의 열쇠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작업은 현존하는 독특하고 다양한 과거의 문화, 자연, 건축, 환경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도울 뿐 만 아니라 생명력있는 관광개발(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차원에서 유적자원의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앞서 언급한대로 유적지는 과거로부터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가시적인 산물로서 이에 대한 적당한 연출 작업은 현재를 과거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미래를 위한 도약대를 제공하는 교육적 차원과 아울러 때로는 향수감을 불러 일으키게도 해준다. 또한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조장해 관광객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유적지의 해석 및 연출 작업은 경영, 마케팅, 재정 및 전략의 핵심으로서 자연자원 및 문화유적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연출작업의 한 예를 들어보자. 유적지를 방문할 때 단지 한글과 영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 비영어권 관광객들이 우리 유적을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 수 밖에 없다. 여행안내서 등에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주요 언어도 함께 기록해 세계 여러 관광객들이 우리의 유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준다면 그 효과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유적지에 대한 충분한 해설과 이에 따른 주요 언어로의 번역이 많을수록 유적지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출작업이 될 것이다.

3. 결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화유적은 지역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많은 교육적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한편 관광측면에서도 물질주의와 향락배급주의에 편승한 구태의연한 관광에서 벗어나 건전한 관광조성과 국가 이해의 기반을 제공해주는 대안관광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문화유적지의 관리와 개발방향은 문화유적이 갖고 있는 연속적 속성을 감안해 첫째 단계로 보존작업이 성실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문화유적 주변의 자연환경보존과 훼손 내지 파손된 부분의 복원화 작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확한 고증에 입각하고 현대적 의미가 가미된 해석과 연출 작업이다. 해석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객에게 봉사하는 작업의 출발점이라 보고 연출을 그 작업의 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보존과 상충되기 쉬운 관광개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유적지역의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고장에 자랑할 만한 유적지가 있다는 것은 미래의 관광산업 뿐 아니라 지역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주시

고향이 좋다

발 닿는 곳마다 백제의 흔이 살아 숨쉬는 공주. 비단처럼 아름다운 금강(錦江)과 무령왕릉 · 마곡사 ·
공산성등을 둘러봤으면 계룡산에도 올라 옛 역사를 떠올리는 것도 멋있다. 돌아오는 길엔 국립공주박물관 ·
국립민속극박물관 · 임립미술관 그리고 공주문화원에도 가볼 일이다. '공주문화의 지킴이' 정재욱 공주문화원장과
백남훈 공주시장 권한대행을 만났다.

백제의 고도

‘공주’

강민철 domingo@cultureplus.com



정재욱 공주문화원장

만 34년동안 봉직한 '문화원의 산증인'

정재욱 공주문화원장(48)은 문화원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올해로 문화원 생활 만34년, 한마디로 '문화원 인생' 이다. 만 14세였던 68년 12월에 문화원에 발을 들여 놓은 후 80년에 일신상의 이유로 몇개월동안 '외도' 한 것을 빼고는 문화원 밖을 나가 본 적이 없다. 평직원으로 시작해 공무과장으로, 사무국장으로, 부원장으로 한계단 한계단 밟아 문화원장 자리에 앉았다.

지난해 7월 1일 문화원장에 취임한 정원장은 "전통·현대가 어우러질 때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는 말로 21세기 우리문화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인터뷰 중간에 "전국문화원에 대한 경상운영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1문 1답

○ 공주문화원이 그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공보부 시절 전국의 3대 문화제중 하나로 지정 받은 백제문화제를 1966년부터 현재까지 본원 주관으로 개최해 오늘날 국내 대표적인 종합문화예술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백제문화제는 올해로 48회를 맞는다. 197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까지는 각종 강연회와 강좌 등을 개최해 간접적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사생대회·서예대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문예활동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원사 신축을 계기로 공연활동에 중점을 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바 있다. 또한 본원에서는 애향운동사업의 일환으로 1960년대부터 출향 인사와 고향간의 가교역할을 위해 월간지로

정재욱 공주문화원장



발간되어오다 중단된 '공주소식'을 1988년 3월(제77호) 속간함으로써 2002년 1월호(제231호)에 이르고 있다. 매월 3000부 발간되는 공주소식은 전국은 물론 해외의 공주출신 교포, 전국문화원, 문화원 문화가족, 유관기관에 배달돼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

○공주문화원은 숙원사업인 문화원사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66년도에 준공된 원사가 노후하고 공간이 부족해 오늘날의 문화예술사업 시행에 있어 서 많은 애로가 도출됐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1997년 4월 20일 문화관광부, 충청남도, 공주시에 원사 신축계획서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한 결과 이듬해 국고 1억원, 도비 2억원, 행자부 특별교부금 3억원, 시비 1억3천5백만원 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으며 이어 원사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650평으로 신축한다는 계획하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총예산 23억 5백만원을 조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첫 삽을 뜬지 1년 4개월 만인 2001년 6월 1일 신축준공하게 됐다.

○공주는 옛 백제의 도읍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역사적 의미가 큰 고장인데 향토문화 연구사업과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요?

흔히들 공주하면 '백제의 고도' 정도로만 알고있어 다소 안타까운 심정이다. 물론 공주는 서기 475년부터 538년까지 5대왕 64년간 백제의 도읍지였다. 그러나 공주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때 웅진도독부·공주도독부·공주목이 설치된 바 있으며 조선시대들어서는 1602년 충주에 있던 감영이 이곳으로 옮겨온 이후 1932년 충청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충청도의 수부역할을 해왔다. 그런가하면 공주는 무녕왕릉의 발견 등으로 인해 국립공주박물관과 공주대학교 박물관, 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에서 백제와 관련된 유물수집 또는 유적 등의 연구가 전문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반대로 백제시대 이후의 역사 연구가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원에서는 백제이후의 조선시대에 관련된 사료조사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향토문화 연구사업을 실시해 왔다. 본원은 '조선실록 공

주관련사료'를 비롯해 '조려 이유태의 향약과 정훈', '한국의 근대와 공주사람들' 등 매년 향토 사료지를 발간해 왔으며 전통문화 계승사업 또한 지역적인 여건으로 많은 자료가 산재해있기 때문에 자료조사수집 및 연구과제가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실정이다. 이에 본원에서는 '공주의 민속', '공주의 민속신앙', '공주의 소리' 등 전통문화 관련책자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전년도 원사 신축준공시 자료준비부족으로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향토사료관의 자료수집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공주문화원사 준공
기념테이프커팅식





○ 공주문화원의 문화행사중 독특하거나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리고 공주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행사는? 그리고 문화원의 역할은?

지난해 본원의 주관으로 공주문화예술인 화요마당 행사를 정기적으로 11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으며 지역문화의 해를 기념하는 지역 무용단체를 초청해 2차례의 공연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원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은바 있다. 공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행사로는 백제 문화제가 있다. 백제문화제가 처음 개최된 것은 1954년으로 부여였는데 이때의 행사는 오늘날과 같이 종합문화예술형태가 아닌 제향 형태로서 행사명도 백제대제라 했다. 공주가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 시작한 것은 1966년도로 통산 13회 때부터이다. 이때에는 공주와 부여가 매년 동일기간에 각기 행사를 실시했는데 효율성제고로 인해 1979년도부터 격년제로 홀수 해에는 공주에서, 짝수 해에는 부여가 개최해 (2001년 제47회)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공주와 부여가 다른 점을 지적한다면 공주의 행사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본원의 주관으로 하는데 비해 부여는 부여군이 직접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사내용면에 있어서도 공주는 단 한가지 종목의 행사라도 전문이벤트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공주인의 힘만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문화제나 축제를 민간단체로 주관해야 한다는 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언급되고 있는데 이점은 나의 경험으로 논한다면 단일행사가 아닌 종합문화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민간단체라도 관의 지원없이 순수한 민간단체의 힘만으로는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

언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예산때문만이 아니고 인적자원의 한계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관 주도나 민 주도나 기준은 그 행사의 예산편성권과 프로그램 편성권을 누가 갖고 있는냐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 공주 백제문화제는 이런점에서 분명하게 민주도라고 할 수 있다. 본원이 예산편성권과 프로그램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본원이 지역문화학교로 지정 받은 것은 1993년도이다. 그동안 매년 문학, 향토사, 한국화, 전통예절 및 다도, 꽃꽂이등의 강좌를 개설 운영했으며 원사를 신축 준공한 2001년도에는 실기위주의 강좌에 중점을 두어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사물놀이, 가야금, 민요, 종이공예, 한국화, 향토사)과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스포츠댄스, 종이공예 등)총8개 강좌를 운영, 2001년도말 현재 1천 1백여명을 배출한 바 있다. 또한 수강생들에게 발표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어 지역문화학교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면 한국화·종이공예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가야금·풍물등은 '공주문화예술인 화요마당'에 출연시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7개 강좌종목을 늘려 풍물(초급반, 중급반), 가야금, 판소리 및 민요, 종이공예, 한국화, 향토사,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일본어, 전통예절 및 다도, 가곡, 꽃꽂이, 국선도(단전호흡)등 총13개 종목의 강좌를 목표로 현재 모집중이다.

공주문화예술인
화요마당





백제왕행렬



○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전국문화원연합회에 건의할 것이 있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 라고 하는 구호에 걸맞지 않게 문화원의 지원규모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연간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해봐야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약 7천만원이고 경상비는 2천만원에 불과하다. 본원의 예를 든다면 월 전기료만 평균 1백만원이 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상비는 공공요금 납부액에 불과하다. 이것은 최근 원사를 신

축했거나 앞으로 신축할 문화원은 다 같이 겪는 사항일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지방문화원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로 문화원 육성을 조례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일부의 문화원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것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경상비로 정액화한 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굳이 정액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본보조금을 현수준으로 정해 지급하고 증액을 하고 앓고는 해당 지자체에 일임토록 해야할 것이다. 현재도는 지자체에서 증액해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정액화는 각 문화원의 원사규모나 사업·인적자원이 평준화되었을 때 가능한 제도이다.

한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각 지방문화원의 권익보호와 위상제고를 위해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이는 전국문화원연합회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우리 문화원 전 가족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이다. **문**



“도심속의 공산성 ‘백제촌’ 으로 조성할 터”

“어떤 책을 보니 미래는 감성과 꿈을 파는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라고 했더군요. 과거가 ‘이성의 시대’ 라면 이제는 ‘감성의 시대’ 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공주시는 문화예술행정을 지원만하고 실천·집행은 문화원이 하도록 함으로써 ‘백제의 고도’ 공주를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백남훈 공주시장 권한대행(56)은 예로부터 공주는 ‘백제의 고도’ 이자 충청감영이 있던 역사도시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라는 지리적 여건과 결합하면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열어갈 ‘노른자위’ 도시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도심속의 공산성을 백제의 멋과 맛, 예술을 느낄 수 있는 백제촌으로 조성할 예정이고 2002월드컵을 계기로 열리는 안면도 꽃박람회 기간(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중에는 공주의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 공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행사는 무엇이고 공주만의 문화관광 상품화 전략은?

우선 전국 3대 문화제의 하나로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백제 문화제를 들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중부권(대전·충남북) 우수문화 관광 프로그램으로 3년연속 선정되어 올해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마다 열리게되는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을 비롯해 2월의 감사괴목대신제와 정월대보름시민한마당, 3월의 덕진산성제, 4월의 계룡산산신제·새내기축제, 7월과 8월의 고마나루 축제·전국관소리명창명고대회, 9월의 정안 알밤축제, 10월의 백제문화제·금강국제자연미술전·아시아1인극제, 11월의 우금티 거리예술제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티 투어’와 같은 체험 관광 상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주시의 문화예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 공무원을 한 직종에 오래 근무토록 함으로써 전문요원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을 많이 알아

야 자문도 얻을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중앙 및 도의 교육기관이나 문예진흥원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가 하면 전국단위의 각종행사를 견학하며 벤치마킹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주말이나 행사시 격무에 시달려 기피하기도 하는데 근무 평점과 승진 기회를 더 주는 등 인사상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관광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곳은?

사적 제13호인 무령왕릉을 비롯해 관광객들이 가볼만한 유적지로 무령왕릉·공산성·석장리 구석기 유적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찰로는 마곡사·동학사·갑사·신원사·영평사·성곡사가 있고, 박물관으로는 국립공주박물관·산림박물관·공주민속극박물관·임림미술관·수석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계룡산에는 은선폭포·남매담·연천봉·삼불봉·장군봉이 있습니다. 이밖에 공주에는 계룡산도예촌·동학혁명위령탑·금강유황온천·마곡온천·곰나루 국민관광단지·황새바위순교지·계룡산 조각공원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또 시민들이나 도와 중앙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우선 금강 곰나루에 설치예정인 라버댐은 도와 협의해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강교 원형복원 사업은 환상적인 공산성 야간조명시설과 함께 관광 명소화할 계획입니다. 송산리 고분군 모형관을 올해 하반기에 개관하고 석장리 구석기 유적전시관 역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산성 성안마을의 토지 및 가옥을 연내 매입 완료해 백제의 멋과 맛, 그리고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웅진 백제의 집과 백제 마을, 그리고 팔각정·연못·전통마당등을 갖춘 백제정원을 고풍스럽게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와함께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도 국도비를 적극 유치해 연차적으로 추진, 많은 관광자원을 가진 도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14만 시민들에게서도 시정에 대해 변함 없는 애정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인적인취미는?

등산과 스포츠를 즐깁니다. 특히 음악공연을 좋아합니다. 클래식 분야라면 실내악과 교향악 연주를 모두 좋아하고 전통 문화공연은 기존 작품보다는 창작작품을 선호합니다. 종종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즐겨 봅니다. 



일인극



고마나루축제



외국인왕·왕비체험

농·특산물 고향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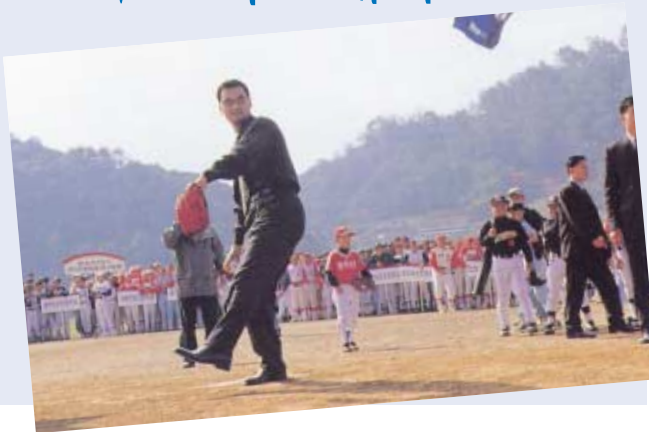
①표고버섯 ②공주 정안밤 ③통천포 배
④계룡백일주 ⑤공주 우성오이

공주시 특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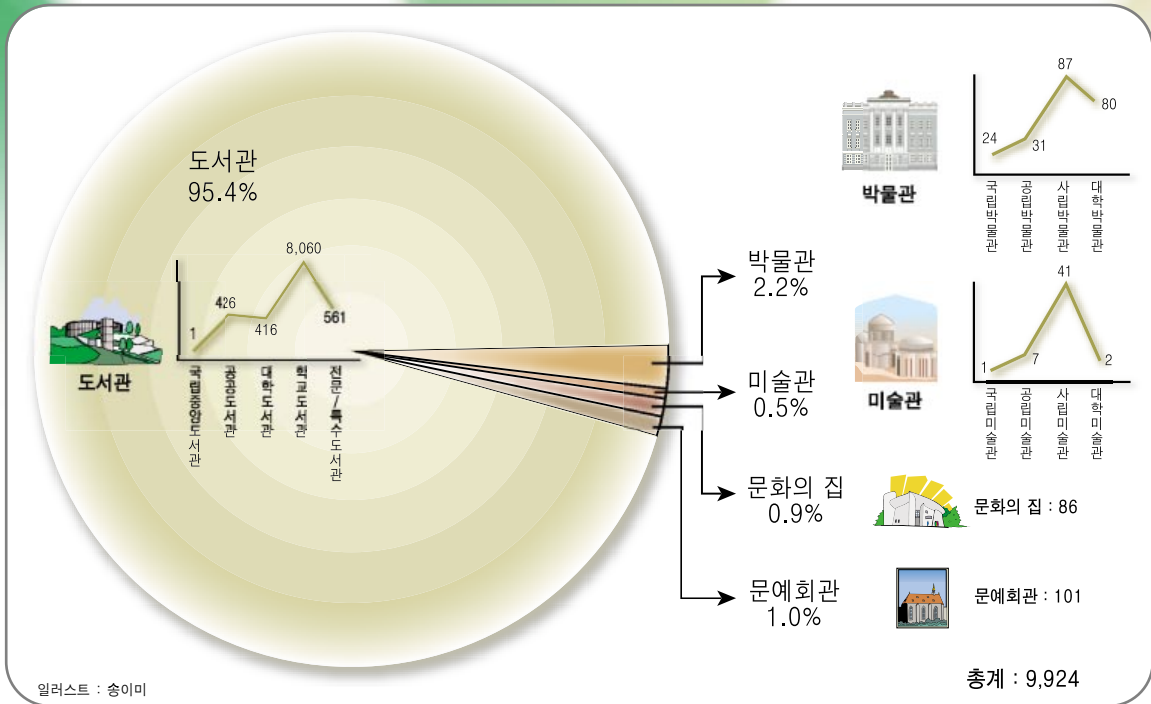
공주와 박찬호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공주 출신 박찬호 선수가 모든 어린이에게 건강한 스포츠 정신과 야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무한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한 전국 초등학교 야구 대회다. 99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2001년에 2회대회를 개최했으며 매년 30여개 팀들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친다.



전국문화기반시설 현황



〈지방문화원〉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문화원 집 · 문예회관〉

(기준 : 2001. 10월)

계	211	구 분	내 역	관 수	비 고
서울	22	도 서 관	국립중앙도서관	1	
부산	7		공공도서관	426	공립 403(자치단체 184, 교육청 219), 사립 23
대구	7		대학도서관	416	
인천	3		학교도서관	8,060	초 · 중 · 고교
광주	5		전문 · 특수도서관	561	국회 법원 의학도서관 등
대전	5		계	9,464	※ 문고(文庫) : 2,277개소
울산	3	박 물 관	국립박물관	24	문화부소관 15, 타부처소관 9
경기	31		공립박물관	31	
강원	18		사립박물관	87	기업 32, 개인 55
충북	12		대학박물관	80	국립 11, 공립 17, 사립 52
충남	17		계	222	
전북	14	미 술 관	국립미술관	1	국립현대미술관
전남	22		공립미술관	7	
경북	23		사립미술관	41	기업 16, 개인 25
경남	20		대학미술관	2	사립 2(조선대, 경상대)
제주	2		계	51	
		문화의 집	계	86	국고지원 78, 지자체 자체조성 8
		문예회관	계	101	
		총 계		9,9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인사말하는 이수홍 회장

책자 발간, △생활문화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 회장은 “이번에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은 전국214개 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위수여식장에서 있었던 이수홍회장의 인사말 전문을 소개한다.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이 지난 2월 22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학 대학원 졸업식에서 지역문화발전과 향토문화연구·창달에 기여한 공적으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 정문연 한국학대학원 창립 이후 네 번째 명예박사학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MBC TV 총국장과 상무이사를 지낸 이 회장은 95년 전국문화원연합회장에 취임한 이후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회장은 특히 전국의 문화원이 수집한 민속자료 등을 국학 연구기관인 정문연에 연구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정문연과 공동으로 전국의 지방 문화원 관계자들을 교육시키는 등 긴밀히 협력해왔다. 정문연이 이 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것도 이런 공로를 인정한 것.

이 회장은 7년 동안 전국문화원연합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문화원예산 증액, △지방문화원 44개 추가 설립, △향토자원 관련

이수홍(李秀洪)회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 받아

◆ 학위수여에 즈음한 인사말씀 ◆

존경하는 이현재 이사장님! 장을병 원장님!

정해창 한국학 대학원 원장님!

그리고 대학원위원님들을 비롯한 교수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50여년간 전국의 지방문화원장과 그 회원들이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금년은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더 한층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의 시대라는 것은 문화와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영역으로 대두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부존자원도 빈약함으로 물적자원면에서는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적자원과 문화자원면에서는 세계인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어 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쟁력은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것”이라는 명제하에 정부는 1994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본래 민간 자생단체로서 출발했던 지방문화원은 새로운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현재 214개 기초자치단체에 자리를 잡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향토문화의 조사연구와 지역고유의 축제와 행사를 비롯한 주민에 대한 문화교육과 생활개선운동 등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장하며 문화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방문화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지방문화원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라는 서로 다른 행정부처에 속해있지만 연구교육기관과 현장실행 집단이라는 상호보완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상적인 업무협력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수년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고문서 수집사업을 할 때, 또 민속전자대전을 준비할 때 지방실정을 잘 아는 지방문화원이 협조를 하였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지방문화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연찬회를 개최하여 훌륭한 교수진이 현장실정을 청취해서 토의해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전수하고 격려해주심으로써 지방문화원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잘 찾아보면 앞으로 크게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많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을병 원장님! 그리고 교수님들과 학생여러분!

이 시간 이후 본인을 여러분의 가족의 한사람으로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전국의 지방문화원장과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2월 22일 이 수 홍

2NIX PLAZA



“한국장인의 예술혼
기술에 담아 전세계에 알려겠다”



투닉스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앞에서 자사제품인 도자기 머그컵을 들고 있는 박정학 대표

강민철 domingo@cultureplus.com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이라고 해서 모두 세계적인 수

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것 중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아이টে를 찾을 때야말로 진정한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도자기 전문 쇼핑몰 ‘2NIXPLAZA’

를 운영하고 있는 (주)투닉스 대표 박정학씨(35)의 말이다.

(주)투닉스(www.2nixplaza.com)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사업환경을 적극 활용해 잠재사업가치(Potential Value)를 발굴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가치공유를 견인해내고자 하는 젊은 기업이다.

특히, ‘문화전쟁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를 맞아 한국문화의 감춰진 세계성을 발굴해 전세계에 확산하겠다는 의지로 문화상품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해 8월 22일 개막된 2001 세계도자기 EXPO를 통해 국내의 대표적인 도자예술가들과 한국도자기의 세계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호텔정보화 1위 기업인 (주)루넷과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자체 개발된



(주)투닉스의 한국문화쇼핑서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웨스턴조선호텔·스위스그랜드호텔 등 20여 특급호텔에서 외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다국어 도자기 쇼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현재는 국내 특급호텔 27,000여 객실 중 3,000여 객실에 서비스 되고 있지만 머잖아 (주)투닉스와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지역을 넓혀 나가는 한편 해외 동반 진출도 계획 중에 있다. 도자기 쇼핑서비스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상품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주)투닉스는 국내 특급호텔의 외국인고객 전용 쇼핑서비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국내외 기업 및 개인 대상의 투닉스프라자(www.2NIXPLAZA.com)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도자기의 우수성과 감춰진 세계성을 인터넷을 매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세계화의 시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박 대표는 한국 도자기중에서도 세계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이템으로 분청사기를 꼽은데 이어 이같은 세계 최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기 위한 차별화된 방법론을 강구했다.

투닉스 플라자는 첫째, 이 세상 어떤 쇼핑물보다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촬영은 전문 사진작가에 의해 디지털 촬영 전문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다. 덕분에 청자에서 흔히 보이는 표면에 금간듯한 빙얼 현상까지 확대해 보여 줄 수 있게 됐다. 제품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해볼 수 있도록 평면과 입체 지원 솔루션을 탑재했다. 이를 위해 2D(평면)·3D(입체) 이미지 지원 솔루션 업체와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구축했다.

“만일 제품에 생동감이 없다면 구매력은 떨어질 것입니다. 저희 2NIX-PLAZA에서는 실물 느낌 그대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객의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그런가하면 작품의 보유 가치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가장 고급스런 디자인 구현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광고 및 디자인을 전공하고 다수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 박정학씨가 직접 디자인 했다. 특히, 전화면에 걸쳐 작품 이미지를 끝까지 지원하는 Image to All 프레임 기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는 기법으로 매 화면마다 다른 작품이미지가 매 페이지에 지원되는 것이다.

“한국의 도자기는 이미 세계성에 인정받고 있지만, 세계무대에 본격적

으로 소개되고 있지는 못한 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도자기협회의 노력으로 2001 세계 도자기축제를 개최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닉스 플라자는 한국문화의 우수성 및 세계적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21세기 사업환경을 기반으로 한 뉴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냄으로써 한국문화가치의 세계화에 앞장 서겠습니다”

처음에 투닉스 플라자는 판매가 부진하기도 했었지만 SK등 기업의 해외바이어 및 국내고객의 선물로 채택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박 대표는 “2월에 들어선 설날 선물 수요까지 겹쳐 판매가 더욱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2월 7일 기준 벌써 2천만원 정도의 판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로 불려진다. 이런 시점에서 (주)투닉스가 벌이는 한국문화상품의 세계화는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한지 이제 4개월째에 접어든 박씨는 “한국 장인의 예술혼을 웹 기술에 담아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3월 30일~4월 5일 엑스포 공원서 개최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2002 축제가 오는 3월30일(토)부터 4월5일(금)까지 7일간 경주 보문관광단지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성황리에 개최된다. 경주시는 최근 해당 기관단체장, 지역대학 총·학장, 문화원장 및 관광관련 기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술과 떡 잔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의 문제점을 개선·반영하는 등 올해 총 8개 분야 48종에이르는 행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각종 편의시설과 행사안내·외국인통역·교통유도요원의 확충 등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지난해에 대호평을 받은바 있는 각종 관람객 참여행사를 대폭 확대해 체험적 축제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주문화원과 경주향교 등 문화예술단체와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생활개선회 등 시민 단체·지역대학 등이 행사에 직접 참여토록해 시민 중심의 축제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올해 행사의 주요 특징은 매일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관람객 참여·체험 행사와 마당극, 두드락, 한국 씨름과 일본 스모의 친선경기 등 14종의 신규 행사, 그리고 월드컵 성공기원 사인볼 참여와 축구알까기 대회 등 2002월드컵 대회와 관련한 참여행사를 들 수 있다.

축제는 3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개막식과 더불어 인기가수 축하공연으로 그 막이 오른다. 이 축제기간 중에는 전국의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각 70종 종류 이상의 전통주와 떡의 실물 및 제조도구, 유례 등이 전시되고 경주 전통 개발 떡 및 중요무형문화재인 누비옷도 전시된다. 공연행사로는 도립국악단공연, 일본 무형문화재인 일본 전통떡치기 공연, 신라국악예술단공연, 월드컵치어리더응원시범공연, 엿치기공연 등 총 9종의 각종 공연이 실시된다. 또 개나리농악단이 공연장과 행사장을 번갈아 가면서 풍물길놀이 공연을 펼쳐 매일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조성된다.

특히, 가족단위 또는 연인끼리 참가하는 가래떡썰기·화전만들기·누룩디디기·술이름 맞추기 경연 대회를 시간대별로 실시하는 한편 시상품도 함께 지급한다. 민





속놀이 경연장에서는 윷놀이 · 투호놀이 · 떡널판뚜기를 경연행사로 진행해 우리의 옛 민속 풍습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과 함께 대형 연날리기도 실시한다. 또 체험 행사로서는 국내 · 외 동북아 3개국 5개 자매도시를 비롯 한국전통의 떡 제조 시연 및 시식회는 물론, 떡메치기 시연과 관람객들로부터 희망자를 신청 받아 현장에서 직접 떡을 만들어 보게한다.

이와함께 전문가와 함께 주도와 다도 예절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되고 월드컵대 회 성공과 16강 진입을 기원하는 대형 축구공 사인불행사와 월드컵 축구알까기대 회도 실시된다. 특별행사로는 이번 행사의 빅 이벤트로서 한국 씨름과 일본 스모간 의 친선경기를 통해 전통씨름경기방식과 전통 스모경기방식으로 단체전과 개인전 을 통해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 의 전통관례 및 전통혼례를 재현해 보이고 탤런트 최불암씨등 다수 연예인이 참 가해 펜 사인회와 각종 경연 참여 행사를 벌이게 된다.

이 축제에서는 전국의 전통주 30개 업소가 참여해 70종이상의 한국 전통주 시음 과 할인 판매가 실시된다. 또 30종류 이상의 떡을 현장에서 전량 직접 제조 판매하 며, 경주시와 자매우호도시인 일본의 우사시, 간자끼정 중국의 서안시와 전북 익산 시의 떡제조단이 참가해 그 지역의 술과 떡과 함께 각 지역 농특산품 및 전통음식 도 곁들여 홍보 판매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써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서는 한국의 술과 떡잔치 일정에 맞춰 사이버 영상관 등 7개관을 개장하고 경주시 도자기협회주관으로 제2회 신라도자기축제와 경북도내 시군 농산물 명품(캐릭터) 전시도 동시에 개최된다.

문화와 관광의 도시인 경주에서 개최하는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관람객들 은 보문단지를 수놓는 아름다운 벚꽃과 신라 천년의 문화유적도 함께 둘러보는 시 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festival.or.kr/kyongju>> <편집부>



통과의례와 음식차리기

류 장 수 | 전 우리문화 편집주간



통과의례(通過儀禮)란 민속학에서 쓰는 말로 사람이 출생해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치르게 되는 크고 작은 의식이나 의례를 말하며 이 때는 으레 음식을 장만해 상차림을 하게된다. 우리 조상들이 지켜내려온 의례에 관한 풍습은 지금도 면면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동양문화권에서는 인륜의 대사(大事)로 사례(四禮)를 치르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사례란 관례·혼례·상례·제례를 이르는데 그중에서 상례와 제례는 그 자손들이 치르게 되는 의례이다. 여러 가지 의례와 의식 가운데 길사(吉事)에는 출생·관례·혼례·회갑례 등이 있고 흉사(凶事)에는 장례가 있다.

이같은 모든 의식절차는 의례법으로 정해져 있고 모든 의식에는 빠짐없이 특별한 음식을 반드시 차리는데 거기에는 기원·기복·외경·존경의 뜻이 따른다.

출생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면 누구나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득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간절하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음식을 가려먹고 태아에게 나쁘다는 것은 피하는 습속이 있는데 이를 일러 태교라고 한다.

산월전엔 시부모나 남편이 산미(産米)와 산곽(産藿)을 마련하는데 산미는 특상미를 미역은 장곽을 사서 껴지 않고 둘둘 말아 어깨에 메고와서 시령이나 선반에 매달아 둔다. 이는 정신적으로 산모를 안심시키고 출산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 출산예정일을 기다리다가 산기가 있으면 산실 윗목을 깨끗이 하고 소반에 백미를 소복이 담아놓고 정화수 한 사발을 떠올린 삼신상을 차리고 산곽을 쌀뒤에 걸쳐놓고 해산 시중을 드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산신께 순산을 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산미로 밥을 지어 흰사발에 고봉으로 세 그릇을 푸고 산곽으로 끓인 미역국도 세 그릇 떠서 삼신상에 차려놓고 감시하고 장수를 빈다. 산모에게도 같이 차려서 첫국밥을 먹인다.

백일

아기가 태어난지 백일이 되면 일가친척은 물론 이웃 사람들을 청해 아기를 보여주며 축복을 받고 백설기와 음식을 차린다.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에는 백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백일이 되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기를 넘어서는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갓난아기가 사람을 반겨 방실 방실거릴 줄 알아 경사스러운 마음이 더 클밖에 없는 것



이다'고 쓰여 있다.

아기를 위해서는 음식을 풍성하게 차린다. 백설기는 백설같이 순수 무구함을 뜻하며 새 아기를 찬양하는 의미가 있다. 또 수수팥떡은 부정한 것을 예방하는 주술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 백일떡을 1백사람에게 나누어 먹게하면 백수한다는 전설이 있다. 또 백일떡 그릇은 씻지 않고 그냥 돌려주어야 아기에게 좋다고 하여 씻지 않고 실이나 돈을 담아 답례로 주었는데 실과 돈은 장수와 부귀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첫돌

아기가 출생해 만 한 살이 되면 자축과 축복을 겸한 잔치를 베풀다. 돌을 맞는 아이를 '돌장이'라 하여 그날의 주인공이 되고 돌잡히는 풍속이 있다.

남아에게는 색동저고리 풍차바지에 복건을 씌우며 여아에게는 색동저고리 다홍치마에 조바위를 씌워 성장을 시키고 돌상 앞에 앉힌다.

돌상에는 음식과 각종 물건을 차려놓는데 남아와 여아가 약간 다르다. 우선 백설기·수수팥단자·쌀·국수·과실·돈·대추·종이·붓과 먹 등을 늘어 놓은 후 남아는 천자문과 활·화살을 놓고 여아는 천자문 대신 국문을 놓고 활과 화살 대신 색실·실패·자 등 유래가 있는 물건들을 놓는다. 무명필을 접어서 방석삼아 아기를 앉히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아기가 무엇을 먼저 잡는가를 구경하며 아기의 장래를 점치는데 책을 먼저 잡으면 글을 잘하게 되고 활을 잡으면 장군감이요 자를 잡는 여아는 바느질을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 대추는 자손

이 번성한다고 여긴다. 이와같은 것을 돌잡이라고 한다.

관례

옛날에 남자는 20세가 되면 어른의 복색을 입히고 상투를 틀고 갓을 씌우는 관례를 행하고 여자는 15세에 땅 앉던 머리를 틀고 비녀를 꽂는 계례를 거행했다. 이것은 성인이 되었음을 사회에 알리고 인정받는 의식절차였다. 하지만 나이가 차지 않았어도 혼례를 치르면 성인대접을 했다.

우리나라의 관례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신라시대의 원화·화랑제도는 일종의 관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관례의 의식은 부모와 존속친이 길일을 택해서 주례자의 주관으로 삼가례를 행한다.

삼가례란 머리에 쓰는 것과 옷, 신을 세 번 다른 것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초가는 성인이 된 것을, 재가는 진사되는 것을, 삼가는 벼슬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삼가례가 끝나면 사당에 고하고 어른의 교훈을 받고 상견례를 행한다.

혼례

혼례는 사례 중의 하나로 납채·문명·납길·납폐·청기·친영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중에서 친영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온다는 뜻으로 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신랑은 사모 관대하고 신부집으로 장가들어가는데 후행이 따라간다. 신부집 동네에 들어서서 혼례시각까지 대기하는데 이곳을 사처라하고 후행으로 온 사람은 상객이



라고 하며 신부집에서는 사처에 술상을 내보낸다. 정해진 시각이 되면 전안례(奠雁禮)를 행하고 이 예가 끝나면 초례청에서 초례를 지내는데 전안례와 초례를 합하여 대례라 하며 이것은 지금의 혼례식에 해당된다.

혼례에는 교배상과 큰상이란 이름의 음식상이 차려지고 이바지음식과 폐백음식이 마련된다.

교배상은 초례청에 차려지는 상이며 일반적으로 사철나무, 대나무, 동백나무를 꽃아 상 좌우로 놓고 촛대 한쌍에 청홍색 초불을 켜다. 또 봉황새를 닮은 닭 한 자용을 목만 내놓고 보자기에 싸서 놓고 쌀·팥·밤·대추·곶감·삼색 과일과 떡을 차려 놓는다.

큰상은 혼례식이 끝나면 신랑에게 차려주는 축하의 음식상인데 강정·유밀과·다식·숙실과·당숙·과실류·전과·편·어물새김·편육·전유어·적 등이 오른다.

이바지음식은 신랑과 신부집에서 정성껏 차려 새로 주고받는 음식을 말하며 신부가 시집으로 들어갈 때 폐백음식과 함께 만들어 간다. 폐백음식은 지방에 따라 다르나 서울지방에서는 청주에 대추, 밤과 쇠고기로 만든 전포를 가지고 간다. 신부가 시부모에게 큰절을 올리면 대추와 밤(생물)을 신부 치마폭에 던져주면서 '아들 딸 많이 낳아 잘 기르며 잘 살라'고 덕담을 한다. 신부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온 인편에 신랑집에서도 정성껏 준비한 이바지음식을 신부집으로 보낸다. 이처럼 혼인해 사돈이 되면 음식을 주고 받으며 정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풍속이었다.

회갑례

부모가 60회 생신을 맞으면 회갑이라고 하여 자손들이 모여 잔치를 베풀어드린다. 회갑례 때도 혼례상과 같은 교배상을 차리고 자손들이 차례대로 잔을 올린다. 현주가 끝나면 초청한 친척과 부모님의 친구들에게 국수장국을 중심으로 교배했던 음식을 고루 차려 대접한다.

회갑례는 사례에는 들지 않으나 가정의 대사중의 하나이다. 교배상에 차리는 음식의 종류나 품수, 높이 등에 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품수나 높이를 정해 음식을 차렸다.

교배상은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바라만 본다고 하여 망상이라고도 하고 상받는 사람 바로 앞에 드실 음식을 차리는데 이를 입매상이라 한다.

일반적인 상차림으로 생과류, 그리고 맨 뒷줄에 전과류와 조과류, 병류 등을 보기 좋게 색을 맞추어 놓았다.

회혼례

회혼례는 혼인해 만 6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예식이다. 자녀도 많고 유복하면 회혼을 맞는 부부가 신랑 신부처럼 복장을 하고 자손들에게 축하를 받는다. 이 의식도 혼례에 준하나 자손들이 현주하고 권주가와 음식이 따르는 점이 다르다. 망상과 잔칫상은 혼례 때와 같다.

통과의례는 사람이 출생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치뤄야하는 의식절차를 이르는 것이므로 장례까지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치르는 통과례만을 다뤘다.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2001.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강원발전연구원은 작년 12월 6일 강원도 춘천 OB베어스관 광호텔 2층 소양홀에서 50여명의 지역문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컬처링크 아태지역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컬처링크는 지난 89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발전 10개년 사업'의 하나로 설립한 '세계문화발전정보네트워크'다. 이번 세미나에는 톰 오리건 호주문화·미디어정책연구소장(문화 기획과 문화산업·지방발전)·장 하이 등 중국 길림대 초빙교수(중국의 서부지역 개발전략과 지역문화 자원의 활용)·강신표 인제대교수(지역문화정책과 지역주민의 갈등과 해소)·사마산제이 창원대 초빙교수(인도의 문화와 지역개발)·테레사 란스즈 필리핀 전 국가 문화예술위원회 부국장(필리핀 전망:문화자원개발)·김향자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실장(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이봉구 동의대교수(문화관광마케팅에의 접근전략)등이 나와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 내용을 요약정리한다.(편집자주)

톰오리건(호주문화 미디어 정책연구소장)

문화기획과 문화사업, 지방발전

이주 국내 및 국제 문화정책차원에서 지방(농촌)과 도시 발전관련 사안을 보는 방식의 차이를 다루고자 한다. 지방발전관련 사안들은 공동체문화발전과 지역예술발전으로서의 문화를 포함하는 문화 및 공동체 발전전략이 제외된 경제발전전략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도시발전관련 사안들은 경제와 문화발전을 '화해'시키며 '창조적' 도시를 진흥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문화정책 내에서 구성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공간을 위한문화기획

유럽의회에서 최근 출판된 저서에서 리아 길라르디는 문화기획을 '현대 도시의 문화발전에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약속한 '문화정책에의 새로운 접근'으로 본다. 그가 최근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와 경제, 사회적 삶의 다른 측면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문화기획은 지역공동체 전체를 위한 발전기회를 창조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는 예술, 매체, 유산, 운동, 레저, 환경정책결정을 연결시키는 기획이다. 문화기획은 정책결정자들이 원하는 결

과를 변화시키며 잠재적으로 긍정적 발전을 더욱 확산시킨다. 토니 베네트는 "서로 정보를 보다 많이 교류할수록, 문화정책은 보다 넓은 폭의 일관성을 위한 다양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문화정책결정은 '도심'과 도시전체를 재생시키는 보다 큰 구도의 부분이 된다. 여기서 문화기구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의 지평을 전환하고 도시계획, 도시발전, 도시상품화, 창조적 도시 및 입안의제들 간의 세분야간 연결을 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문화정책은 감독하기보다는 도시와 주변 및 레저 기획을 위한 것이 된다.

때때로 이러한 조정 및 기획 작업은 문화정책 기구와 구도 밖에서 이루어지며 때로는 이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의 문화정책구도 내에서 실행될 경우 기획과정은 도시나 지방의 문화, 유산, 레저 수단을 조정하는 한편, 상업적 예술관련산업과 연계되도록 하고 '예술'보완요소들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문화기획이 의회나 정부의 경제분야 외 다른 곳에서 이행될 경우 '창조적 도시'또는 '현명한 국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는 종종 지

속가능성의 논리가 (새로운) 산업발전과 취업 기회를 통한 공동체와 번영의 건설이 되는, '포괄적인' 사업이 된다. 여기서 '창조성'과 창조적 역량강화는 '지식·정보·네트웍' 사회의 맥락에서 다른 도시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한 도시나 지방의 위치와 관련된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이전에는 분리되었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우선 순위, 즉, 도시와 농촌의 개혁, 지속 가능한 발전, '현명하고' '지성적인' 국가 또는 네트워크화된 '창조적 도시'의 실현이다. 이러한 정책 아젠다는 다른 것과 비교해 국가·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세계화된 환경 속의 정부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로 보도록 인지하는 요구에 의존한다.

지방공간을 위한 문화기획

'문화기획'의 시점에서 놀라운 것은 그 초점이 얼마나 단호하게 그리고 배타적으로 도시적이나 하는 점이다. 문화기획은 구조적으로 지방과 농촌발전에 적용된 적이 없다. 왜? 이것이 개혁의 분배-농촌과 지방공동체가 이러한 모델들을 장차 받아들일 경우의-에 포함된 피할 수 없는 '지체된 시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농촌과 지방발전을 전통적 공동체가 현대적 경험과 현실을 위해 자신을 조절, 재교육, 재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들을 심각하게 '비경제적'인 것으로 보는 방식은 도시계획시기의 성공적인 발전특성의 최적화를 보장할 수 없다.

문화기획과정 실행에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지방공동체의 비판적 대중이다. 작은 농촌과 시골마을 공동체에서는 몇 명의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비전에 의해 많은 것이 이뤄질 수 있으며 또 이뤄졌던 반면, 도시에서는 창조적 자원과 필요한 전문기술과 역량의 가용성으로 인해 이러한 지도력과 전략적 시각을 건설하기가 훨씬 더 쉬웠다.

지방발전에 문화산업을 양도시키는 것으로 문화기획논리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호주연방100주년 주요 사업으로 퀸즈랜드 유산네트웍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화산업논리는 문화관광을 주된 '산업'으로 보는 전분야적인 토대-이 경우에는 박물관과 유산관련분야-에 적용됐다. 문화관광은 여기서 많은 목적에 기여했다. 문화관광은 주객의 교류에 기초해 호주의 농촌과 대도시 간의 관계를 설립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문화적 격차에 다리를 놓는 문화다양성의 목적에 기여했다.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이 사업은 도시민들이 지방의 농장이든 모텔이나 호텔이든 또는 여러 박물관, 자연 및 문화유산지역과 자연공원에 방문객이 될 것을 요구했다. 반대로 지방공동체들에게는 방문객들을 맞을 자신들의 역량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다.

유산네트웍은 단지 도시와 오지(奧地)를 연결시킴으로써 격차를 해소하려는 도구만이 아니었다. 이는 관광객들이 오지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도록 하는 교류에 기초하고 있었다. 다양한 공동체들이 지역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국가적, 국제적 무대에 투사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공동체들이 동반자로 일하는 모든 차원의 정부들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공동체들이 경제활동을 진작하고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산지역과 소장품, 이야기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유산네트웍, 2001) '퀸즈랜드 정부, 연방정부, 퀸즈랜드 공동체들'이 함께 일하는 파트너십이었다. 아울러,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잊혀졌던 오지의 불평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도록 했다. 그리고 퀸즈랜드 주변의 현대박물관과 우수 유산지역의 발전을 통해 오지의 '서비스 산업' 역량을 만드는데 정부가 헌신하기 시작하게끔 했다.

유산네트웍은 이러한 '네트워크사고'의 부분으로 고안됐다. 이것은 연결된 역량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트웍의 지리적 교차점-서로 다른 박물관들이 서로 연결, 연계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트웍은 퀸즈랜드 지방을 위한 공동체 정체성 확립과 역량강화역할을 실현시키는데 중요한 것이었다. 유산네트웍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라는 말에서 문화와 산업발전에 중점을 두며 사회정책, 관광정책, 정보와 통신기술 정책, 문화정책, 문화유산정책을 통합시켰다. 

강신표 (인제대 교수)

지역문화정책과 지역주민의 갈등과 해소

지역문화정책은 두 가지 레벨, 즉 국가적 차원의 지역 문화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문화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민갈등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민과 관, 주민 대 주민의 갈등이 그것이다.

국가차원에서의 지역문화정책

국가차원에서의 지역문화정책은 산업과 지나치게 관련짓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태권도공원설립을 위해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자기지역이 태권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려 애썼고, 마침내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서로 비방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슷한 예로 한국의 로빈훅이라 할 만한 홍길동이나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 논개를 놓고 특정지역들이 서로 지역 상징인물로 만들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다.

이는 문화정책이 주민과 국민의 화합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그 반대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즉 특수성, 고유성, 우수성 등이 강조되는 정체성 만들기 식의 지역문화정책은 자칫 지역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음을 뜻한다.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정책

국가와 지자체들은 문화시설의 설립을 지원했지만, 충분한 문화프로그램과 운영인력을 확보할 정도의 지원은 해주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문예회관이 예비군교육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개탄을 한 적이 있을 정도다. 많은 이들이 '행정대상으로서의 문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부

족하다고 하지만 '문화'는 그나마 예산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을 수 있는 분야다 가장 기본적인 일들, 즉 문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워줘야 한다.

주민대관의 갈등

사례1. 197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이 끼친 영향은 참으로 컸다. 국가는 마을마다 새마을 지도자를 정해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전파해야 할 첨병들인 새마을지도자들이 곳을 주관하는 리더가 돼 전통적 종교를 부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마침내는 한국전통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샤머니즘을 다시 인식하게까지 됐다.

사례2. 강원도 양양군에는 송이 축제가 있다. 1998년 제2회 송이축제 도중 군의회의원들이 주최측에서 자신들을 소개해주지 않는다면 행사장에서 집단퇴장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지역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례3. 또 다른 예로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강조됐던 '열녀'와 열녀 관련 유적에 대한 예산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남녀평등을 외치는 인류보편적, 미래지향적 문화와는 정반대입장임에도 지역의 '문화적 장로들'은 자신들의 지역내 권위와 유력한 가문의 명예, 문화재 지정을 통한 물질적 지원 등을 목표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치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제까지 등한시됐던 문화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돌려야하며, 이미 그런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가령 지역문화의 해 공식 웹사이트의 이슈포럼 게시판 51번 글을 작성한 호성민씨는 아파트단지의 노인정을 silver세대의 문화중심지로 만들고 노년층이 좋아할 음반·영화 등을 구비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주민간 유대관계가 약한 대도시지역의 노인정에 옛 음반과 영화 등의 자료축적이 이뤄지면 자그마한 자료실이 마련될 것이고, 옛 문화를 느껴보려는 청소년들의 이용을 유도해 신구세대의 문화전수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주민과주민이 갈등

경상북도의 한 도시에서는 주민들 중심의 아마추어 예술인 단체와 국가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문화단체들 사이에 은근한 대립이 존재한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점차 문화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일 듯한 태세인데, 한정된 재원을 두고 같은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다.

우선 국가가 특수성·고유성·우수성 등을 강조하면서 배타적 문화형성의 한 원인을 제공했고 이것이 지역단위에서 되풀이돼 이제는 지역간의 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문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없다보니 행정 편의적으로 문화재와 예술, 문화산업과 관광 등의 분야에 정책이 집중돼 경제논리가 우선된다.

심지어는 소수의 리더에 의해 새마을운동과 같은 비문화적 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도 한다. 한편 주민들은 관의 과도한 간섭과 지역문화행사 현장에서의 비문화적 행위들에 대한 실망이 크다. 지역주민의 갈등문제는 지역문화정책의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만 최소화될 성격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다음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장기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지원, 지역차원의 문화전략에는 그동안 그 역할이 미미했던 사회문화 전문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는 화장터 건립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화장이라는 장법에 대한 거부감, 죽음과 장례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의 문제는 분명 문화적인 문제임에도 서울시와 서초구의 정치적 대립으로만 사태가 인식되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은 바로 이런 분야에

전문 문화연구자들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어제까지 지역주민과 지역문화정책의 갈등은 사안별로 해결해 왔으나 대개 미봉책에 불과했다. 한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총체적인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하는 것이 긴급하며, 그것이 근본적인 갈등의 해소책이된다고 믿는다.

둘째로 이제까지 등한시됐던 문화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돌려야하며, 이미 그런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가령 지역문화의 해 공식 웹사이트의 이슈포럼 게시판 51번 글을 작성한 호성민씨는 아파트단지의 노인정을 silver세대의 문화중심지로 만들고 노년층이 좋아할 음반·영화 등을 구비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주민간 유대관계가 약한 대도시지역의 노인정에 옛 음반과 영화 등의 자료축적이 이뤄지면 자그마한 자료실이 마련될 것이고, 옛 문화를 느껴보려는 청소년들의 이용을 유도해 신구세대의 문화전수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물론 필요하지만 자립하도록 해야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이자는 안은 어리석다. 민간이 담당해서 더욱 효율을 발휘한다면 과감히 정부 보조 단체들의 역할을 거두어야 하지만, 정부보조 단체들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 특히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보다는 전문인력이 활동하도록 유도해 인구가 줄고 있는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층의 고용창출 효과도 노려야 할 것이다. 

이봉구 (동의대 교수)

문화관광마케팅에의 접근전략

문화관광이란 '한 지역의 역사, 예술, 과학 혹은 생활 양식에 대해 전적으로 혹은 상당부분 흥미를 가지고 그 지역을 즐거움과 교육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관광이 최근에 등장한 현상은 아니지만 (예: 고대의 유적지 순례, 근대의 교양관광 등), 1980년대 초부터 문화관광은 '즐거움을 위한 관광(pleasurable tourism)'과 구분돼 주목받기 시작했다.

오늘날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징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Lou Harris에서 실행한 조사에 의하면 1980년대만 해도 여행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문화,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관광객들이 30%정도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는 50%로 증가했고 1998년에 실시된 미국여행산업협회(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TIAA)가 행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관광객들의 동기 중 "타문화 이해"의 중요성은 1980년대에는 50%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는 거의 90%까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문화관광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은 즐거움을 위해 관광활동에 참가하는 관광객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TIAA), 특히 문화관광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은 다른 유형의 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고(\$48,000 대 \$37,000),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대학교육: 41% 대 32%), 관리직 및 전문직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31% 대 24%), 휴가 여행시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물론 원하는 경험에서의 차이는 관광객에 따라 다양한데 문화관광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네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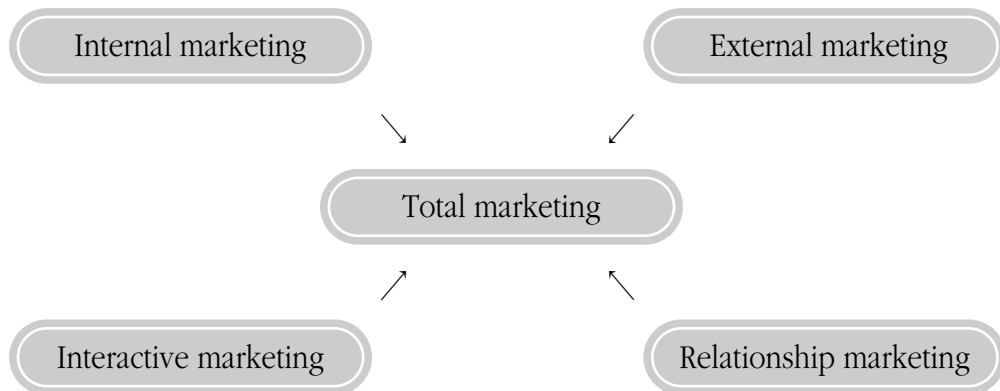
첫 번째 집단은 문화자원의 소비가 관광 활동 참여에 있어서 핵심인 경우다. TIAA의 조사에 따르면 문화 자원을 소비하는 관광객들 중 약 15%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집단은 문화 자원의 소비가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이긴 하지만 다른 중요한 동기(예: 친구 방문, 호숫가에서의 휴식 등) 또한 중요한 집단으로 문화관광시장의 30%정도를 차지한다.

세 번째 집단은 문화 관광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문화자원 소비 이외의 동기로 관광 활동에 참여하지만(예: 오지탐험) 문화 자원을 부수적으로 소비하는 집단이다. 마지막 집단 역시 문화관광 시장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 문화자원의 소비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으나 우연한 계기를 통해 (예: 친구의 권유, 호텔근처에서 축제 개최 등) 이를 소비하는 계층이다.

간단히 말해 문화관광 마케팅은 문화자원의 소비를 통해 독특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그러한 욕구를 다른 어떤 지역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잠재)관광객들에게 성공적으로 확신시키고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 하겠다. 이러한 활동에는 관광객들의 기대와 욕구를 파악해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약속과 관련된 외부마케팅(external marketing), 경험을 직접 전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문화관광에 참가하는 관광자들은 즐거움을 위해 관광활동에 참가하는 관광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TAA), 특히 문화관광에 참가하는 관광자들은 다른 유형의 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고(\$48,000 대 \$37,000),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대학교육 : 41% 대 32%), 관리직 및 전문직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31% 대 24%), 휴가 여행시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을 지급하여 약속을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내부마케팅(internal marketing), 약속된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인 상호작용마케팅(interactive marketing), 그리고 경험의 전달과 관련된 다른 부문과의 관계정립과 관련된 관계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등이 포함된다.

관계마케팅의 구체적인 예들로는 △지역의 상공회의소·CVB와 공동 홍보 △지역주민과의 연계(예: 기업의 직원, 타 관광 산업의 직원, 택시기사들을 초청해 지역내 문화자원에 대해 소개하고 이들을 홍보요원으로 활용) △이웃 지역과 공동으로 문화관광 상품 개발 (예: Illinois와 Michigan 주가 공동으로 조성한 Canal National Heritage Corridor; 주 내에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홍보하기 위해 조직된 California Cultural Tourism Coalition) △지역 내 관광산업 (예: 호텔,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내에 홍보물을 비치해 홍보 매개체로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타 기관·지역과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는 관련 기관·지역이 모두 동일한 몫을 기여할 뿐 아니라 동일한 혜택을 얻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케팅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마케팅 활동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다 보면 문화자원의 상품화(commodification) 및 파괴 등 지속적이지 못한 (unsustainable) 방향으로 문화자원을 활용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면 문화관광 정책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문화적 진정함(cultural authenticity)’을 퇴색시키는 것이며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가치가 있는 본질성을 값싸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Cohen의 경고를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국 자치단체 지역문화행정가들

제주에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워크숍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워크숍(지역문화예술행정가 대토론회)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휘트니스타운에서 전국 232개 자치단체 문화예술행정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문화관광부(전통지역문화과)가 주최하고,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작년 '2001, 지역문화의 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문화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도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일선 문화담당공무원들이 토론과 대화를 벌이고 효과적인 추진방법과 지역문화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토론회는 3개 주제를 6개 분과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는 '지역민속축제의 차별화·전문화'로 1~2분과에서 다뤄졌고, 제2주제는 '전국 문화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3~4분과에서, 제3주제는 '전통문화

보급과 올바른 방향(생활화)'으로 5~6분과에서 토론됐다. 각 분과의 토론사회는 이원태(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정강환(배재대학교 교수), 이혜경(여성기획 대표), 김석만(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강신표(인제대학교 교수), 이종인(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첫째날(26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분과별 토론이 진행됐고, 둘째날(27일)에는 분과별 토론과 종합토론 및 문화관광부 2002년도 지역문화진흥정책 설명이 있었으며, 셋째날(28일)에는 문화탐방으로 끝을 맺었다. **문**



문화관광부

2002년도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

문화관광부 예술국과 문화정책국에서 추진되는 2002년도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이 확정됐다. 예술국 소관 사업은 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② 국악강사 풀제운영지원, ③ 푸른음악회 개최지원, ④ 지역특성화 사업지원, ⑤ 체험위주 가정문화프로그램 강화, ⑥ 이달의 문화인물사업, ⑦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⑧ 각종 경연대회 시상지원 개선, ⑨ 노래연습장 불법·퇴폐영업행위 등 근절, ⑩ 2002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⑪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육성 ⑫ 지방 공공 공연장 운영활성화, ⑬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검상태 점검 강화, ⑭ 지방 공공시설의 공연대관료 징수제 개선 등이다. 문화정책국 소관 사업으로는 ①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 ② 월드컵 대비 지방박물관·미술관 활성화, ③ 문화기반시설 지방비 예산 확보기반 조성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문**

강릉 단오제 등 18개 지역민속축제, 30여개 소규모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특히 문화관광부는 올해부터 특색있는 우수 지역민속축제를 선정해 집중지원할 계획에 이어서 관심이 간다.

문화관광부의 '지역민속축제 육성방안'에 따르면 강원 단오제, 충남 백제문화제 등 9개도 18개 대표 지역민속축제를 중심으로 △예산의 확대 지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문가컨설팅, △축제담당자 연수기회 확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작년도에 선정한 9개도의 대표적 지역민속축제 18개에 대해 국고 및 각종 기금을 확대 지원하고, 축제 전문가 컨설팅을 정례화해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축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예진흥원 벽제 문화예술연수원에 축제기획자 양성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축제담당자를 대상으로 선진외국의 축제 벤치마킹 프로그램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18개 지역민속축제 이외에도 작년 '지역문화의 해'에서 지원하였던 전승·보존가치가 있는 각 지역의 소규모특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약 3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8개 지역민속축제는 제주 '탐라국립춘굿놀이'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계속되는데,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축제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전통을 되살린 우리고유의 향토축제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집중육성될 18개 민속축제는 다음과 같다.



◀창녕 영산 3·1민속문화제 (2월28일~3월3일)

▼제주시 탐라국 입춘굿놀이(2월 3~4일)



도별 지역민속축제 내역

구분	축제명	일시/장소	주최/주관	내 용
경기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10월중(3일) -안성시 일원	-안성시, 안성남사당 바우 덕이축제 위원회 -중앙대 국악대학	○안성남사당의 유일한 여자 꼭두쇠 바우덕이 추모제 ○남사당놀이재현 등
"	전곡리 구석기 문화축제	-5.4~5.5 -연천군 전곡리선사유적지	-연천군, 연천문화원 -구석기문화축제위원회,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전곡리 구석기문화체험교실 ○퍼포먼스 '원시와 현대의 만남' 등
강원	단오제	-5.3~5.7 -강릉시 남대천 단오장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문화원	○신주근양, 산신제 및 국사서낭행차 ○영신제, 조전제 및 단오굿 등
"	단종문화제	-4.4~4.6(3일간) -영월군	-단종제위원회 -영월군유림단체	○단종대왕제향, 충신제향, 농마을도깨비 놀이, 단종유배 길 재현 등
충북	우록문화제	-9~10월 -충주시 일원	-한국예총충주지부	○악성 우록과 명현들에 대한 추모제, 강수백일장 ○김생 사료전시회, 전국탄금대 가아금 경연대회
"	온달문화 축제	-10월(3일간) -단양군 단양읍 영춘면	-온달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온달장군진혼제, 온달마당극 ○온달평강 가면가장행렬, 온달장군 선발대회 등
충남	백제문화제	-10월초 -공주, 부여(격년)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지방문화원	○백제문화를 재현하는 역사 문화축제 ○웅진성역사행사, 역사대행렬
"	해미읍성 역사체 험 축제	-6월초 -서산시 해미면 해미읍성	-서산문화제 추진위원회 -서산문화원	○조선시대 생활상을 체험하는 관아 체험, 장터체험 ○병인박해 옥사체험 등
전북	위도띠뽀놀이	-음력 1.3 -부안군	-부안군 -위도띠뽀놀이보존회	○원당제, 주산돌기, 용왕제 띠뽀뛰우기
"	남원삼동굿놀이	-음력 7.15 -남원시	-삼동굿놀이보존 위원회	○기세배, 당산제, 우물굿, 삼동서기, 지네밧기, 합굿 등
전남	진남제	-5.3~5.6 -여수시 중앙동	-진남제전보존회 -진남제전추진위원회	○거북선 문화체험 한마당, 수록대제, 한노젓기 체험행사 ○소년 이순신장군 선발대회
"	장보고축제	-5.31~6.3 -완도국제무역항 일원	-완도군 -축제추진위원회	○청해진사람들 만남의 날, 장보고대사 행차길놀이 ○해상활동재현극, 노젓기대회
경북	신라문화제	-10.8~10.10 -경주시 일원	-경상북도 -경주시, 신라문화 선양회, 경주문화원, 예총 경주지부	○길놀이, 화랑·원화선발대회, 동체싸 움, 비전무 ○신라불교영산대제, 원효예술제
"	자인단오-한장 군놀이	-단오일(3일간) -경산시 자인면	-경산시 -한장군놀이보존회	○한묘대제, 여원무, 팔공대놀이, 창포머 리감기 등
경남	3·1 민속문화제	-2.28~3.3 -창녕군 영산면	-3·1민속문화향사회	○3·1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쇠머리대 기, 줄다리기 등 지역 무형문화재 계승
"	남명선비 문화축제	-8월중(4일간) -산청군 덕천서원 등	-산청군 -(사)남명학연구원	○남명제, 전통혼례, 전통유림행사 재현, 남명정신 주제 강연회 등
제주	한라문화제	-9.28~10.3 -제주도 일원	-예총 제주도지회 -한라문화제 집행위원회	○한라산신제, 신불·연불 섬길 놀이, 제 주역사문화유적탐방
"	탐라국입춘굿놀이	-입춘일(2일) -제주시 일원	-제주시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신년초 주민들의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입춘굿, 세경놀이 등

문화관광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문 화관광부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인 문화국가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과제로 ①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②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활용 극대화, ③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한 문화정보인프라 구축, ④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⑤ 민간의 예술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둘째, 순수예술의 활성화 및 우리문화의 세계화 과제로는 ① 순수예술 창작역량강화로 문화창조력 제고, ② 순수예술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③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경쟁력 제고, ④ '문화한국' 이미지의 세계적 확산 등이 추진된다.

셋째, 중산층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 ①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②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강화, ③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고용창출, ④ 사회발전을 위한 종교계 역할제고 및 전통종교문화 보존·계승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넷째, 문화산업을 국가핵심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① 문화산업 진흥기반 조성, ② 문화산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③ 우수 문화콘텐츠 창작·개발역량 확충을 위한 제작여건 조성, ④ 문화콘텐츠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 ⑤ 디지털 콘텐츠개발 활성화 및 R&D 지원 강화 등의 사업이 전개된다.

다섯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로 ① 선진형 관광인프라 구축, ②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강화 및 시장다변화, ③ 국민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통한 관광복지 실현, ④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수입 증대, 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 등이 전개된다.

여섯째,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①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체계 강화, ② 월드컵을 통한 문화·관광한국 이미지 선양, ③ 국가대표 축구팀 경기력 향상, ④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⑤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본격 준비가 추진된다.

이밖에도 일곱째 국민체육 진흥, 여덟째 창의적·진취적 청소년 육성, 아홉째 남북 문화·관광·체육·종교분야 교류, 열번째 문화유산 보존·전승과 가치 재창출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문**

2002 공연예술워크숍·무대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정옥)은 2002년도 공연예술워크숍과 무대예술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문예진흥원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무대예술연수회관 시설 중·개축을 계기로 완벽한 실기(습) 교육이 가능한 교육시설을 완비하고, 소수인원을 선발 집중식 교육을 통해 예술성·전문성·현장성을 겸비한 무대공연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해 예술현장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3개월 과정의 공연예술워크숍은 우리나라 대표적 연극연출가인 이윤택씨 지도아래 잠재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해 예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기자로 양성한다. 또 1년 과정의 무대예술아카데미는 국가공인 '무대

예술전문인' 자격제도와 연동해 체계적이며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한 무대미술 및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육성한다.

- 지원자격 :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유경력자
- 모집인원 : 30명(공연예술워크숍) / 70명(무대예술아카데미)
- 접수기간 : 2002년 2월 21(화)~3월 11일(월) 18:00 / 공휴일, 일요일 제외
- 접수처 : 한국문화예술진흥원(교육연수팀) / 담당 : 박은석
- 주소 : (411-53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464-1(☎02-760-4652/4667)

문화관광부

2002년 문화관광축제 29개 선정

문화관광부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3개 최우수축제를 포함, 2002년 지원대상 문화관광축제 29개를 선정했다. 문화관광축제는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각 지역 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큰 축제를 정부 지정축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축제 29개 가운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금산인삼축제' '강진청자문화제' 등 3개 축제는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통해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축제 전문평가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그밖에도 진도영등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등 23개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정됐으며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기장대면벌치축제, 강경전통맛갈짓축제 등 3개는 외래 관광객 유치효과와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잠재성을 인정받아 2002년 신규 축제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지원대상 문화관광축제의 확대(99년 21개, 2000년 25개, 2001년 30개)를 지양하고 축제의 내실화를 기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예년보다 축소된 29개를 선정했다. 2002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라는 공식행사명을 사용하고 최고 1억원에서 최저3천만원에 이르는 행사비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지원받게된다. 또 인바운드 여행업계와 협조해 축제행사장과 인근관광명소를 연계해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토록 지원받는다. 문화관광부

는 특히 2002년 문화관광축제를 '월드컵축구대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국제적인 축제로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성있는 축제로 육성키로 하고 아리랑TV와 한국관광공사 해외조직망을 통해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축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01년 문화관광축제 30개를 추진한 결과 외래관광객 14만명을 포함해 총 1325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특산물 판매, 음식, 숙박업소의 수입 등 4,418억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집계(이상은 지방자치단체 통계)돼 문화관광축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산인삼축제의 경우 인삼의 판매, 수출증대를 위해 축제기간중 국제인삼교역전을 개최함으로써 12개국 24명의 해외바이어가 방문해 2억3천8백만원의 인삼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문화관광축제가 세계적인 유명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외래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객이 방문지역에서 체류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농가민박이나 농어촌 휴양시설 등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외래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는 등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2002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현황

축제명	기간	주요행사내용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제주)	2.23~2.24	○전통혼례, 집줄농기, 오름오르기, 무사안녕 풍년기원제, 행운의 돼지·오리몰이 경주 등
청도소싸움축제	3.16~3.20	○전국소싸움대회, 한·일친선투우경기, 예쁜소뽕기, 한우로데오경기 등
한국의술과 떡잔치(경주)	3.30~4.5	○술과 떡의 실물·도구·자료 등 전시, 중국서안민속공연 등
영암왕인문화축제	4.7~4.10	○왕인설화마당극, 왕인박사도일고대항로대탐사, 백제민속놀이(쌍륙놀이·투호) 등

*기장대변멸치축제	4월중	○멸치날기, 털기 등 어업현장 동행 프로그램, 멸치비비기대회, 멸치무료 시식회 등
진도영등축제	4.27~4.29	○뗏목놀이, 바닷길 걷기체험, 진도특산물 선물받기 등
하동야생차축제	5월중	○차만들기대회, 어린이차예절경연대회, 녹차특별 전시회, 올해의 명차 선정 등
남원춘향제	5.4~5.8	○춘향제향, 창무극 춘향전, 춘향국악대전, 전통혼례식, 향토아시장 등
대구약령시축제	5.7~5.12	○대구국제한의학박람회, 한방요리전, 전국약령시교류전, 우리약초 천연 색깔전 등
춘천국제마임축제	5.22~5.26	○마임공연(인형극장, 방문공연, 거리공연 등), 도깨비난장, 마임강습회, 강릉 관노가면극 등
한산모시문화제	6.1~6.6	○한산모시옷패션쇼, 한산모시디자인공모전, 모시새벽시장 등
*세계태권도문화축제2002	6.28~7.7	○태권도무도대회, 전통무예체험, 태권도연수, 전통예술공연 등

2002년 하반기 문화관광축제 현황

축 제 명	기 간	주 요 행 사 내 용
보령머드축제	7.20~7.26	○머드마사지체험, 머드게임, 머드테마거리퍼포먼스, 갯벌체험, 셀프머드마사지체험, 머드조각체험 등
고성공룡나라축제	8.8~8.11	○고성오광대공연, 고성농요, 공룡해상퍼레이드, 세계공룡발자국화석전시, 내가만든 공룡전시 등
강진청자문화제	7.28~8.3	○청자여름캠프운영, 청자야외영화제, 청자함께만들기, 청자빚기체험, 천년의 꿈마당극, 강진청자 특별전 등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8.10~8.19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애니멀 로봇경연대회, 전통과학으로의 여행, 테크노 뮤직 및 아트쇼 등
무안연꽃축제	8월말	○동남아국가 참여 불교문화제, 풍물길놀이, 연꽃가요제, 국악공연 등
무주반딧불축제	8월경	○반딧불이 신비탐험, 반딧불이 생태체험관 운영, 남대천 뗏목타기 등
금산인삼축제	9.6~9.15	○세계민속페스티벌, 개성인삼 특별전, 전통민속놀이, 인삼캐기여행, 금산인삼동의보감, 약초썰기체험 등
난계국악축제	9월말~10월초	○전국국악경연대회, 국악학술대회, 난계송모제, 악학 대상 시상, 난계국악단공연 등
충주세계무술축제	9.27~10.3	○국내외 무술시연, 무술패션 퍼포먼스, 명장퍼레이드, 전통무예도 탁본 뜨기, 병장복 의상체험 등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9.27~10.6	○탈춤공연, 제32회 안동민속축제, 하회선유줄불놀이, 탈춤워크샵, 탈만들기 등
통영나전칠기축제	9.30~10.3	○해상관광 유람선 운항, 나전칠하기, 문양그리기,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및 동작배우기 등
김제지평선축제	9월말	○벽골제사, 쌍용놀이, 전통상례재현, 세계 쌀음식 기획전, 입석줄다리기 등
풍기인삼축제	10.2~10.6	○지역문화예술행사, 인삼요리경연, 인삼씨앗뿌리기, 인삼캐기체험 등
양양송이축제	10월초	○송이채취현장체험, 농가홈스테이, 송이보물찾기, 송이요리경진대회 등
부산자갈치축제	10.18~10.22	○외국인요리경연대회, 장어이어달리기, 맨손으로 활어잡기, 생선회 정랑달기 등
*강경전통맛갈짓 축제	10.19~10.23	○젓갈 김치담그기, 강경포구 낚시대회, 젓갈김치시식회, 풍물놀이 등
광주김치대축제	10.23~10.2	○김치담그기 체험코너, 김치포장디자인 공모전, 민속놀이마당 등

* 표시축제는 신규축제

기벌포예술제등 지역문화활동사례 9건 지원

다음의 지역문화 활동사례들은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각종 지원사업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지역문화의 해'의 이념과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문화의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판단된 후보를 4차의 검토회의를 통해 선정한 것이다.(가나다 순)

1. 기벌포예술제(충남 서천)

기벌포문화예술원은 문화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에서 15개 이상의 문화예술단체 회원들을 결합시켜 처음으로 기벌포예술제를 주최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지역문화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2. 담양향토문화연구자료 발간(전남 담양)

담양향토문화연구회는 40년 간의 향토사 연구를 통해 41권의 향토사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성을 밝히고 주민들의 정체성 형성에 크게 공헌한 점이 높이 평가됨.

3. 밤마리 오광대문화마을 조성(경남 합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인식을 심어주고, 삶의 질에 대한 동기 부여와 참여를 유도했으며, 지역문화활동에 있어 관과 민의 관계를 정립해 모델을 제시함.

4. 삼국시대 산성 연구(충북 단양)

단양지역에 집중된 삼국시대 산성을 십수 년 간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문화의 형성과정을 밝히고,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등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됨.

5. 숲과 마을 미술축전(강원 원주)

환경생태운동과 예술, 지역주민의 삶 등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눈에 띄며, '지역문화의 해'의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으로서 관광수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됨.

6. 영주문화연구 발표(경북 영주)

영주문화연구회는 주민자치 문화활동으로 문화전수 역량이 높은데다, 문화 전 분야에 대해 관심을 넓혀가며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금에 의존함이 없이 회원 자비로 모임이 운영된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7. 임실신안미술인창작촌(전북 임실)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드문 미술인창작촌을 마련해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 열의를 고취시키고 지역관광 기반을 조성한 민간 창작촌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됨.

8. 진도에 또 하나의 고려 있었네(전남 진도)

진도의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진도의 역사적 사건을 연극으로 꾸며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술활동의 주축이 되도록 함으로써 마침내는 스스로 문화창조 기회를 마련한 과정이 높이 평가됨.

9. 책마을 조성과 북 페스티벌(강원 영월)

강원도 영월군 오지에서 폐교를 활용, 책박물관을 설치해 희귀 자료를 소장·전시하며 책마을 조성과 북 페스티벌을 계획하는 등 책을 통한 지역문화활동 활성화의 노력이 높이 평가됨.

지역문화의 시대,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다

우리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야말로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참된 문화적 삶의 양식임을 굳게 믿는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적·물적 자원의 중앙 집중으로 말미암아 지역문화의 특성과 자생력마저 약화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문화발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지역문화 발전의 주체로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다양한 육성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며 각 문화주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문화의 진정한 발전은 자기정체성의 확립에서 출발하여 자기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켜나가 되 다양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문화의 자치화와 특성화, 다양화를 지향하되, 각 지역의 문화적 뿌리와 정체성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 지역문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타 지역문화의 가치도 아울러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에 우리는 지역문화의 시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 모두는 지역문화 발전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실천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유능한 문화 기획자와 촉매자를 양성하며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간다.

하나,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특성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출한다.

하나, 우리는 조상들이 남긴 귀중한 문화유산이나 사소한 흔적이라도 이를 보존하고 소중하게 지켜나간다.

하나, 우리는 주민의 생활권 안에 문화창조의 기반으로서 적절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문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우선 증액과 다양한 민간재원 조성을 추구하며 성실한 감시자가 될 것을 선언한다.

2001년 12월 21일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마감하며
‘백화제방’ 대토론회 참가자 일동

세시풍속

머슴날

2월 초하루는 '머슴날' 또는 '노비일(奴婢日)'이라 하여 흰떡과 콩을 넣은 송편을 만들어 머슴들에게 나이 수대로 나눠줬다. 그리고 이날 만큼은 머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배불리 먹게 하고 신명나게 놀도록 했다. 가을추수가 끝난 다음 머슴들은 겨울동안 힘든 일 없이 편하게 지냈으나 2월에 들어서면 농사일 준비에 바빠지게 된다. 그래서 고된 일이 시작되기에 앞서 일꾼들을 하루 재미있게 놀게 하는 것이다. 머슴에게 주인이 돈을 주어 쓰고 싶는데 쓰도록 하며 음식을 장만해서 마음껏 먹고 취흥에 젖도록 한다.

또한 '노래기날'이라고도 하여 노래기를 예방하기 위해 콩·명주실·나락·보리·수수를 볶거나 콩떡을 만들어 먹고 지붕에 얹어 놓기도 한다.

'경도잡지'에 의하면 정월대보름날에 세웠던 벃가릿대를 내려서 그 속에 넣었던 곡식으로 송편 등 떡을 만들어 나이수대로 먹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머슴이 일년 내내 건강하다고 한다. 이 날은 머슴끼리 모여 풍물을 치고 노래와 춤으로 한껏 즐겼다. 경남의 의령과 양산군에서는 머슴날을 성인식(成人式)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소년은 신체가 건강해도 어른의 노동력과 맞고환하는 품앗이를 못하는데 당년 20세가 되는 청년은 머슴날 동네 어른과 일꾼들에게 한턱낸다. 그러면 그해부터 성인으로 인정받아 어른과 함께 품앗이도 하고 새경도 높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 머슴날은 과거 농경사회 때 머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줌으로써 그 해의 농사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여는 농경의례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같은 풍습들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영등굿

영남과 호남지방에서는 영등할머니맛이를 한다. 영등할머니는 풍신(風神)으로 2월 초하루에 지상에 내려왔다가 2월 보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영등할머니가 오가는 날에는 주부들이 장독대나 부엌에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소원을 빈다. 저녁에는 좀생이별(星)의 위치를 보고 그 해의 풍·흉년을 점치기도 한다.

영등굿은 해녀 채취물인 해조류·패류의 증식, 어업의 무사형통을 위해 영등신(靈登神)에게 제사하는 제주 바닷가 마을 고유의 무속의례다. 마을에 따라서 '잠수굿'·'해녀굿'이라고도 부른다.

영등굿은 영등신이 머무는 보름 동안 제주도 일원의 바닷가 마을에서 치러졌으나 요즘에 와서는 환영제와 송별제 양일에 국한한다. 제주도의 경우 영등신은 풍신(風神)의 성격도 보이지만 그보다는 해녀나 어부에게 어업의 풍요를 주는 내방신(來訪神)의 성격이 강하다. 이 신에 대한 굿을 보통 '영등신'이라 통칭하며 이 영등신을 '영등할망'이라고 부른다. 이 신은 원래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박이섬'에 사는 신인데 매년 음력2월 제주도로 찾아 왔다가 15일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2월 초하룻날 이 신을 맞이해 비는 굿을 '영등환영제'라 하고 2월 12일에

서 15일사이에 날을 잡아 신을 보내는 곳 ‘영등송별제’를 한다. 영등할머니가 두 딸을 데리고 세상에 내려오면 일기가 온화하고 바람도 심하지 않지만 며느리를 데리고 보면 일기가 불순하고 바람도 심한데 이는 영등할머니가 며느리의 치마를 비바람으로 얼룩지게 하려는 심술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등굿이 행해진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2월 초하룻날 귀덕(歸德), 금녕(金寧) 등지에서는 목간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해 제사를 지내고 애월(涯月)에서는 이들을 때모양을 말머리와 같이 만들어 비단으로 곱게 꾸미고 약마회를 해서 신을 즐겁게 했다. 보름날에는 끝을 맺는데 이를 ‘연등’이라 하고 이날에는 승선을 금했다”는 기록이 있다. 기록상으로 보아 ‘영등굿’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의 영등굿 절차는 많이 변모돼 문헌상의 절차와는 차이가 많다. 영등굿 절차를 보면 굿 전날 여성단체간부들이 모여 떡을 만들고 제물을 준비하는데 비용은 집집의 추렴이나 공동기금으로 한다. 굿은 당의 매임심방이 수심방이 되고 소무(小巫)3명이 악기를 치면서 큰대싸움, 초감제, 용왕맞이, 씨드림, 자아림, 신받음, 배반송 순으로 진행된다.

오늘날 민간에 전승돼 전해지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영등신은 △할망이라 불리우는 여신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박이 섬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내방신(來訪神) △풍우 등 기상과 관계 깊은 신 △해녀와 어부의 생업 및 농업과도 관계 깊은 신이다.



영등굿. 해녀들이 재물을 준비해 모여앉아 굿 시작을 기다린다

삼짇날

음력 3월 3일은 설(1월 1일), 단오(5월 5일), 칠석(7월 7일), 중구(9월 9일)와 더불어 중절(中絶)의 하나다. 중구일 즉, 9월 9일에 강남갔던 제비도 춘삼월 호시절 삼짇날이 되면 다시 옛 주인을 찾아온다고 하며, 제비는 좋은 집을 찾아가 추녀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친다.

삼짇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로 제비맞이하는데서 유래됐고 ‘답청절(踏靑節)’이라고도 하는데 들판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삼짇날 무렵이면 갯가지 나비가 선을 보이며 꽃을 찾아든다. 사람들은 나비를 보고 집을 치기도 하는데, 만일 흰나비를 보면 그 해 상복을 입게 된다고 해서 좋지 않게 여기고 노랑나비와 범나비를 보게 되면 당년운수가 대통한다고 한다.

또 이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해 봄기운이 왕성해진다. 사

람들은 산과 들로 몰려 나가 화전과 수면을 만들어 먹으며 봄을 즐긴다. 산에 만발한 진달래 꽃을 뜯어다가 쌀가루에 반죽해 참기름에 발라먹는 '화전(花煎)'은 봄의 미각을 한층 돋워 준다. 녹두가루를 반죽해 익힌 다음 가늘게 썰어 오미자물에 넣고 꿀을 타먹기도 했는데 이를 '화면(花麵)'이라고 불렀다. 진달래꽃을 따다가 녹두가루와 함께 반죽해서 만들기도 하고, 혹은 붉게 물들여 꿀을 섞어 만드는 '수면(水綿)'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였다.

서당 유생들이 화전을 지져 먹느라고 들에 나가거나 산에 올라 하루를 즐기며 보내는 '꽃 다림'이 널리 유행했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없게 됐지만 간혹 이때를 전후로해 경로회를 베풀어 노인을 모시고 주식으로 대접하는 일이 있다.

【삼진날 절식】

두견화주(杜鵑花酒)

정월에 담았던 술미를 내어 뭍쌀과 찹쌀로 고두밥을 지어 버무려 둔다. 술미가 적어 버무리기 어려우면 끓인 물을 식혀 술미에 타서 쓴다. 술독에 메밥 한 켠, 찰밥 한 켠, 진달래꽃 한 켠을 켠켠로 놓고, 맨 위는 메밥 버무린 것으로 덮는다. 진달래는 꽃술을 따고 술 한 말에 한 제 정도 넣어야 술빛이 좋다. 1, 2주 지난 뒤 오지병에 가라앉혀 맑게 해 마시면 그 냄새가 향기롭고 맛이 그만이다.

두견화전(杜鵑花煎)

찰쌀가루에 꽃을 섞어 넣고, 소금물로 익반죽해 색을 곱게 하여 둥글게 부친다. 궁에서는 비원의 옥류전에 나가 궁녀들이 그 자리에서 꽃을 따서 꽃떡을 지졌다 한다. 일반적으로 화전은 찹쌀가루를 익반죽해 밤톨만큼 떼어 둥글 납작하게 만들어 술을 뿜 꽃을 올려 조그마하게 지져 낸다. 통영에서는 '참꽃 지짐이'라 해 찹쌀 반죽을 크게 둥글 넓적하게 하여 꽃을 넉넉히 얹어 소담하게 부쳐 낸다. 여름에는 노란 장미, 가을에는 국화, 봄에는 가장 맛이 감미로운 진달래꽃으로 전을 만든다. 진천에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서 제상에 꽃전을 올렸다는 기록도 있다.

두견화채와 청면

두견화채는 진달래꽃의 술을 떼고 살짝 씻어 건져낸 다음 녹말을 입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내어 오미자국에 띄우면 된다. 청면은 낫쟁반을 끓는 물에 안쳐 녹말 물을 부어 얇은 녹말편이 되면 채 썰어 오미자국에 띄운다. 오미자국은 진하게 우린 후 생수를 부어 분홍빛과 신맛등을 알맞게 맞추고 꿀로 단맛을 내어 차게 하며 계절에 따라 건지를 달리 띄운다.

【한식날 절식】

쑥떡

찹쌀가루에 어린 쑥을 절구에 부드럽게 찧어서 함께 섞어 버무린 다음 시루에 안쳐서 푹 찌낸다. 쪼개로 안질 때는 사이에 팔소를 얹어 찌다.

쑥단자

찹쌀가루를 찜통에 찌서 뜨거울 때, 데쳐서 다진 쑥을 넣고 절구에 비취색이 나도록 찧어서 판판하게 펴고, 그 위에 꿀로 반죽한 팔소를 넣고 돌돌 말아, 꿀을 바른 양손으로 늘여 가며 밤톨만하게 굽어 흰 팔고물을 묻혀 낸다.

쑥탕

펄펄 끓는 물에 된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조개를 씻어 넣고 펄펄 끓인다. 어린 쑥을 깨끗이 씻어 넣고 마지막에 실파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한식

한식은 동지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양력으로 대개 4월 5,6일 경이다. '청명절'이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한식을 '냉절(冷節)'이라 하는데 그 사연이 얹혀있다. 중국의 춘추시대 때 개자추(介子推)라는 진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문공(文公)을 모시고 있었다. 국난 때 해외로 탈출해 방랑하던 시절, 개자추는 배가 고파서 거의 죽게 된 문공에게 자신의 넋적다리살을 베어내 구워서 문공을 먹여 살려낸 적이 있었다. 그후 왕위에 오른 문공이 개자추의 은공을 생각해 높은 벼슬을 시키려했으나 개자추와 문공 사이에 오해가 생겨 개자추는 면산으로 숨어 들어가 살았다.(일설에 의하면 개자추가 문공을 19년동안 섬겼으나 복록을 주지 않아 면산에 들어가 숨었다고도 전한다.) 나중에 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개자추에게 산에서 나오기를 권했지만 개자추는 나오지 않았다. 문공은 개자추를 산에서 나오게 할 목적으로 면산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개자추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고 늙은 홀어머니와 함께 버드나무 아래서 타죽고 말았다. 그 뒤 개자추를 애도하는 뜻에서 또 불타죽은 개자추에게 더운밥을 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불을 금하고 찬음식을 먹는 풍속이 생겼으니 이를 '냉절'이라 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한식날 문 위에 버드나무를 대문에 꽂기도 하고, 들에서 야제(野祭)를 지내 개자추의 영혼을 위로하기도 했다.

그 유래로 인해 우리도 이 날은 미리 장만해 놓은 찬 음식을 먹고 닭싸움·그네 등의 놀이를 즐기며 불을 쓰지 않는다.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비가 내리는 한식을 '물한식'이라 하며, 한식날 비가 오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한다. 우리는 한식날 여러 가지 주과(酒果)를 마련해 선산에 가서 성묘하고, 조상의 묘가 헐었으면 봉분을 개수하고 주위에 식수도 하고 사초(莎草)도 한다. 민간에서는 해수병에 좋다고 하여 진달래꽃을 따서 술을 만들어 먹고 콩볶음도 해서 아이들에게 먹도록 했다. 이날 약밥·쑥떡·찬밥을 먹으면 일년 내내 병이 없다고 했다.



한복

안감과 겹감의 색채조화는
오행상생설에 따른 배색

한국의 전통의상을 '한복'이라고 부른다. 한복의 상의는 저고리, 하의는 바지를 입는데 여성도 애초에는 바지를 입었으나 나중에 치마를 입어 남성복과 달라졌다고도 한다.

여성의 옷은 상의가 짧고 하의는 길어 단정하고 아담하다. 한국인은 백의민족으로 불릴만큼 흰색을 선호했지만 평민의 의복이었을 뿐 관원들의 의복은 주로 색복이었다.

그래도 한민족의 정서는 흰색으로 통한다. 한복은 예복과 평상복의 구분이 있으며, 이에 여러 종류의 속옷이 따른다. 또한 남녀별·계절별,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나뉘며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 옷의 모양이나 색깔이 달랐다.

그러나 요즘은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입는다.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기본을 이루고 있는 한복은 선이 매우 아름답게 특징이며 옷입는 분위기는 동양적인 생활윤리가 깃든 초연한 멋이 저절로 풍긴다.

한국의상에 나타나는 음양오행 사상

음양오행은 중국에서 전래된 사상으로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이미 고구려 때부터 사용돼 왔으며 조선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사상적 관념이었던 유교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음양오행 사상에 근거해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돼 왔다.

오행사상은 대우주와 삼만상은 모두 음양의 화합·조화로 인해 발생·발전·변영하는 것이며 만물의 생성·소멸을 오행의 변화로 설명한다. 이 오행의 성질과

음양이 화합을 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다고 믿었던 것으로 사상으로의 풍수설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의복에서 나타나는 오행사상은 방향과 색의 음양 조화로 간략하게 요약 될 수 있다. 일반 복식뿐 아니라 무복에서 이를 역력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안감과 겹감의 색채조화는 오행상생설에 따른 배색관계를 보여 준다. 그 외에 음양오행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색동을 꼽을 수 있는데 색동의 황, 청, 백, 녹, 홍의 다섯가지 색이 그것이다. 또 동서남북, 오색 무지개의 꿈, 오복, 오덕, 오행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의 삶을 연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절에 따른 한복

우리 옛 조상들은 봄과 가을, 여름, 겨울에 따라 소재를 달리해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왔다. 계절에 맞는 옷감 선택은 한복의 멋과 품위를 살리고, 전통 소재들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옷을 입을 때는 계절과 나이, 때와 장소에 맞게 색을 잘 선택해 입어야 한다. 격식에 맞는 옷은 그 사람의 품위와 맵시를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배색이란 목적과 효과에 맞도록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짜맞추는 것으로 배색과 보색의 조화는 질서와 통일을 의미한다. 특히 한복은 색상·명도·채도로 우아한 느낌, 지성적인 느낌, 개성적인 느낌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실례로 △가치색 치마+연보라색·옥색·노랑색 저고리 △북청색 치마+옥

색·연두색·분홍 저고리 △남색치마+옥색·미색·흰색·다홍 저고리 △흑자주치마+분홍·미색·옥색·노란색, 회색저고리 △다홍치마+은은한 연두색·흰색·남색 저고리 △보라색 치마+같은 연보라색 저고리 △물비취색 치마+흰색 저고리 △짙은 수박색 치마+흰색·미색·연두색 저고리 △흰색 치마+연분홍·옥색·미색 저고리 등. 한국의 자연색을 한복으로써 잘 조합해 입도록 한다.

▲겨울의 한복 겨울에는 양단과 공단·실크 등으로 치마저고리를 지어 입고, 겹옷으로 두루마기를 지어 입으면 좋다. 겨울 한복은 물결바느질을 하는 천으로 지어 입는 것이 제격인데 수직실·명주·위사수직·자미사 등이 그나마 요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겨울용 옷감이다. 겨울 한복은 방한용으로 외출시엔 두루마기나 반두루마기·갓 저고리를, 가벼운 나들이에는 배자를 걸치면 추위를 막을 수 있다.

▲봄·가을의 한복 봄·가을 소재로는 원래 무명을 비롯해 국사·갑사·은조사·향라 등의 다양한 옷감들이 있었으나, 요즘은 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가을은 자미사·명주·숙고사·국사·실크가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특히 자미사로 옷을 지어 입으면 광택이나 문양·결을 때마다 스치는 옷의 소리 등이 가을을 실감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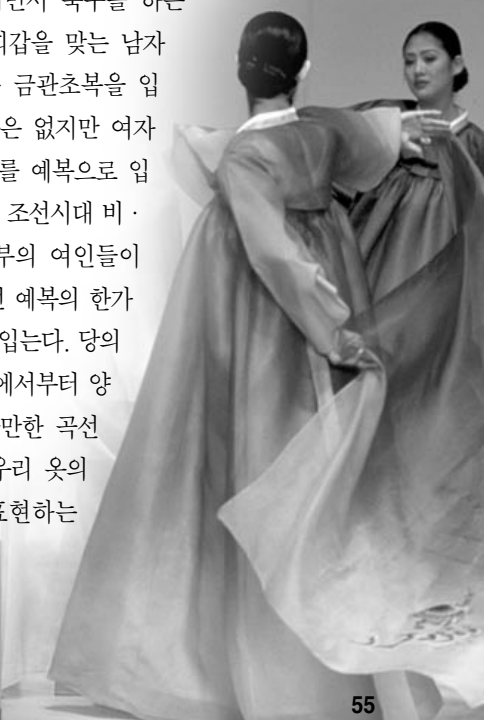
▲여름의 한복 여름에는 모시·삼베가 주소재로 시원한 소재가 역시 인기이다. 초여름에는 무명이나 다듬이한 모시로, 흰색이나 푸른색과 청색 염색을 하는데, 자연소재가 갖고 있는 미색 그대로의 빛깔로 만들어 입어도 멋스럽다. 또 명주하면 으레 더운 옷감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예전부터 생명주·모시·향라 등을 여름철 옷감으로 사용했으며, 익히지 않은 명주도 여름철 옷감으로 사용해 왔다. 한여름에는 베나 쟁친 모시(다듬이질 하지 않은 모시)로 적삼을 즐겨 입었고, 반저모시로 흰 치마저고리를 즐겨 입었다.

혼례 때의 한복

혼례식에서 신랑은 바지 저고리와 조끼, 마고자 위에

두루마기, 단령을 입고 사모관대를 하고 목화(木靴)를 신는다. 관대는 단령의 겨드랑이에 고리가 있어 그 고리에 끼우는데 대체로 허리나 가슴둘레보다 크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는다. 앞가슴의 흉배 중앙에 관대가 위치하도록 한다. 신부는 청홍 스란치마와 노랑 저고리 위에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쓰고 용잠에 앞댕기와 도투락댕기를 드린다. 홍치마의 앞부분을 한번 접음으로써 속에 입은 청치마의 스란단이 나오도록 입는다. 원삼의 봉띠는 가슴을 지나 뒤에서 속끈으로 묶도록 되어 있고 봉띠는 웅매지 않고 속끈에 걸쳐서 한 번만 묶으며, 길게 늘인 끝 부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 번만 묶는다. 폐백 때의 웃인 활옷은 공주의 대례복이었던 것으로 혼례시에는 일반인에게도 허용이 되었던 옷이다. 다홍색 바탕에 장수와 길복의 뜻을 지닌 십장생 길상 문양이 옷 전체에 수놓아져 있는 화려한 옷으로 머리에 화관을 쓰고 앞댕기와 도투락댕기를 드린다

회갑연 때의 한복

회갑연 즉, 수연(壽筵)때는 자녀들이 회갑을 맞은 부모께 헌수를 하는데, 큰상을 차려 술잔을 올리면서 축수를 하는 의례이다. 이때 회갑을 맞은 남자(양반가문에서는) 금관초복을 입었고 정해진 예복은 없지만 여자는 소례복인 당의를 예복으로 입기도 했다. 당의는 조선시대 비빈, 상궁과 사대부의 여인들이 소례복으로 입었던 예복의 한가지로 치마와 함께 입는다. 당의는 겨드랑이 아래에서부터 양옆이 트여있고 완만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는 옷이다. 

된장음식 먹으면 니코틴 '해독'

세 계보건기구인 WHO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인구 평균 5명중 1명 꼴인 약11억명이 흡연자라고 한다. 이중 매년 3백50만명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AIDS, 결핵, 교통사고, 자살, 분쟁학살 등에 의한 사망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다.

WHO는 5억명 이상을 담배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담배는 세계인들의 가장 큰 사망원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담배의 그 대표적인 폐해로 폐암유발을 들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폐암환자의 90%가 담배에 의해서 생기며 폐암 발생위험은 흡연기간과 양에 정확히 비례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담배에는 약 43종의 발암 물질이 포함돼 있다.

담배는 오래 피우면 피울수록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깊이 들이마시면 마실수록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피해는 더욱 심해진다. 흡연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사람은 하루 빨리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담배는 흡연한 기간과 양에 비례해 그 피해정도가 크

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른 건 다해도 담배만은 못 끊겠다하는 사람들, 방법이 없을까?

▼담배의해악성

△남성의 성기능 장애 △40세 이후 돌연사 원인 △뇌세포 파괴에 따른 치매 증상 △흡연자 가족의 간접 흡연 피해(동맥경화의 위험이 가장 높음) △여성 생식 장애(유산, 저체중아, 자궁 외 임신, 불임 등) 확률 높음 △당뇨병이나 심장 발작 등을 잘 일으키고 코를 더 잘 골며, 불면에 자주 시달림 △운동선수는 운동 수행 능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짐 △청소년기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폐의 발달에 장애가 오고 폐의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음(특히 키 성장과 학습능률의 발달에 큰 장애가 됨)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음 △천식 등 자녀들의 건강에 위험 초래 △흡연자들의 피부는 비흡연자들보다 더 빨리 거칠고, 주름이 많아지며, 누렇게 변색되기 쉬움(니코틴이 피부보호 단백질인 엘라스타제를 감소시키기 때문)

▼금연의 기대효과

△금연 후 10년이 지난 사람은 계속 피운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감소, 15년 후에는 1/6 수준으로 감소한다. △담배를 끊으면 폐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비흡연자와 비슷해진다. △담배를 끊고 15년 정도 지나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건강이 회복된다. △50세 이전에 담배를 끊은 사람은 계속 피운 사



람에 비해 그 다음 15년 간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임신 초기 3~4개월 동안 담배 끊으면 저체중아 출생 확률이 비흡연자와 비슷해진다. △급성 심근경색이 생길 위험이 금연 1년 후 비흡연자의 수준으로 감소한다.

▼금단증상

금연을 하고자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금단증상이다. 이는 담배 속에 들어있는 강한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 때문이다. 금단증상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흔히 불면증·피로감·긴장·신경과민·두통·기침·가래·정신집중 장애 등이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다. 금단증상은 금연 후 2~4일째에 가장 심하며, 대개 2~4주 동안 지속된다. 또 담배를 갑자기 끊으면 폐에 흡수되는 산소량이 많아짐으로 인해 두통이나 현기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잠시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좋다. 또한 가래와 기침이 심해지는 것은 손상된 기관지 점막이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현상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금단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성식품인 육식을 줄이고 알칼리 식품인 채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 그동안 부족했었던 비타민과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몸에 좋다. 금단 현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시기가 한정적이므로 담배를 끊는 초기에 잠시만 참으면 되는 것이다. 금연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대체요법과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것보다 끊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의지만 확고하다면 담배와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는 당신의 몫이 될 수 있다.

▼악이 되는 음식

△된장찌개와 된장국: 된장에는 콩의 영양성분인 펩타이드라는 니코틴을 해독시키는 효소가 들어 있고, 혈액 속의 니코틴을 분해시켜 소변으로 내보내는 약리적인 효능이 있으므로 하루에 한끼 이상은 반드시 먹는

것이 흡연자들에게는 좋다. △북어꼬리 달여 먹기: 북어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어꼬리부분을 10cm 정도를 잘라 5개씩을 달여 먹으면 흡연자들에게 좋다. △차(茶): 감초와 칠파리를 각 12g을 달여 1일 2회 차처럼 자주 마신다. 커피대신 녹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다. △파래: 니코틴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다. △김: 메탈메티오닌 성분은 니코틴 독성을 제거해주진 못하지만, 독성을 약하게 하여 몸밖으로 배출시킨다. △기타: 단호박·쇠고기·간 등에 비타민A와 카로틴성분이 풍부해 니코틴을 중화시킨다. 또, 체내에 흡수된 오염물질을 배출·해독시키고 발암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A·B·C·E 성분이 함유된 당근·시금치·고구마·토마토·레몬·견과류 등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악이 되는 행동지침

△보통 흡연의 욕구는 주변상황이 좋지 않을 때 더 생각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금연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기분을 안정적으로 갖도록 노력한다. △스포츠·예술·독서 등 담배를 대신 할 수 있는 취미나 즐거움을 발견해 그것에 몰두한다. △한번 금연에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몇 번이고 계속 재도전을 한다. △흡연으로 인해 부족되기 쉬운 수분섭취를 위해 물·주스 등을 많이 섭취하고 과일을 많이 먹는다. △담배가 없어서 손이 어색하면 연필·가위·고무줄·빗자루 등 대용품을 만든다. △담배가 없어서 입이 심심하면 물을 마시거나 껌·건어 등을 씹는다. △담배를 피고 싶으면 심호흡을 한다. △금연 이유를 노트에 적어서 담배 생각이 날 때 자주 반복해서 읽는다. △금연친구를 만나서 서로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한다. △금연한 사람은 흡연하는 사람이나 흡연장소에 가까이 서지 말고 가능하면 피하도록 노력한다.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거나, 담배를 끊음으로써 건강이 좋아지고, 생활이 여유로와 진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하 드보일드 릴레이무비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와 인터넷 패러디 무비 <다짜마와 Lee>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젊은 감독 류승완.

류감독이 이번엔 '펄프 느와르(Pulp noir)' 영화 <피도 눈물도 없이>(2월 22일 개봉)를 우리 앞에 내놓았다. 'pulp'는 경쾌한, 가벼움의 뜻을 지니고 'noir'는 어두운, 우울한, 비관적이란 뜻이 있으니 '느와르'의 무거움과 '펄프'의 가벼움을 절묘하게 조합한 경쾌한 액션 장르가 바로 '펄프 느와르'.

불법 투견장의 돈가방을 둘러싼 마초들과 두 여자의 강탈을 다룬 영화 <피도 눈물도 없이>는 기존의 한국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강한 캐릭터의 두 여성이 느와르 구조를 이끌어 간다.

전직 라운드걸 출신으로 투견장 중간 보스의 여인이며 가수지망생인 수진(전도연 분)과 전직 금고털이였지만 현재는 택시운전사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경선(이혜영 분)이 바로 그녀들. 어두운 뒷골목, 그림자, 범죄, 악당과 영웅이 공존하는 느와르의 세계에서 '선글라스'와 '가족잡바'로 불리는 이들 여주인공은 기존 남성 중

심의 영화관에 거센 여성 캐릭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남성적인 장르인 느와르와 여주인공이 만난 새로운 시도는 감독자체가 의도한 이 영화의 출발이다.

이제 한번 제대로 일어서고 싶다!

택시운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왕년의 전문 금고털이, 일명 '가족잡바' 경선. 피곤에 지친 몸을 드링크제로 풀고, 담배 한가치에 한 숨을 돌리지만 유일한 희망인 어린 딸과의 해후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여자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아직도 빛을 무기로 그녀를 쫓는 칠성과 일당과 어두운 과거의 기억들. 경선은 우연히 거울처럼 그녀의 삶을 닮은 '수진'을 만나게 된다. 수진과의 만남은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녀를 드디어 일어서게 한다.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 하루만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기스난 내 인생, 기스난 내 상처

전직 라운드 걸 출신이자 가수 지망생인 수진. 그에 걸맞은 웃음과 눈물을 가진 여자, 일명 '선글라스'. 지독한 남자 독불이와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살이는 온통 잿빛 세상뿐이다.

그러나 거울처럼 그녀의 삶을 닮은 '경선'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경선과의 만남은 어제의 상처를 감추었던 선글라스를 벗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참고 참았던 그녀가, 인생의 대반전을 위해 일어난다.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 하루만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마초라면 세상에 대한 미련은 NO!

돈과 힘과 탐욕이 넘쳐대는 그 곳, 투견장. 물고 뜯는 비정한 세계는 투견들의 모습 뿐만이 아니다. 투견장을 둘러싼 한물간 마초(macho. 남자인 기백을 보이는 남성을 이르는 단어로 멕시코의 스페인어에서 유래됐다. 보통 영화에 등장하는 거친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를 설명할 때 쓰인다)들의 인생이 그렇고 투견장 주위의 돌고 도는 돈과 그 돈을 목표로 기회를 엿보는 할일 없는 '양아치'들까지 이들 모두 투견장을 맴돌고 있다.

그곳에 '경선'과 '수진'이 나타나면서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엉켜 들기 시작한다.

영화 <피도 눈물도 없이>에서 마초 세계의 보스는 KGB 김금복(신구 분). 가족에겐 인자한 할아버지이지

**마초세계에 둘러싸인 두여자,
투견장에서 벌어지는 연쇄 강탈**



만 밖에서는 수단 방법을 막론하고 돈을 벌고 잔인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다. 그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남자답게 용의주도하고, 치밀하게 투견판을 다룬다. 그러나, 결국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마초에게 최후를 맞는다.

마초보스의 그림자 경호원인 침묵맨(정두홍 분)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명령에 답하고, 웬만한 상대는 눈빛으로 제압해 버리는 KGB의 오른팔이다. 말이 필요 없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한다하여 침묵맨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뛰어난 싸움꾼임에도 남의 자리 따위는 넘보지 않는 충심을 가진 멋진 마초다.

투견장을 운영하는 전직 복서 출신 독불이(정재영 분)는 아랫사람을 죄고, 보스인 KGB의 눈치를 보느라 야비해질 대로 야비해진 인간이다. 모든 화풀이를 그의 여자 수진에게 하지만, 그것이 수진을 사랑하는 그의 방식. 돈을 향한 야비함 뒤에 알 듯 모를 듯 고독함을 숨기고 있는 그는 결코 야비한 투견꾼도 수진의 착한 남자일수도 없는 불쌍한 운명의 남자다.

칠성이(백일섭 분)는 이름만큼이나 한물간 조직, 칠성파의 우두머리다. 마음과는 달리 나이가 먹어서 허풍으로 험박할 입밖에 없는 그는 힘으로 무장한 후배 짱가파에게 돈을 갚다 바치는 신세다. 하지만 배워 먹은게 그 뿐이라, 경선을 쫓아 돈을 구해 보려 한다. 백골(김영인 분)과 불곰(백찬기 분)은 칠성파에 오래 몸담은 퇴물 강패들이다. 흰머리에 허름한 추리닝 바지를 입고 경선을 쫓는 그들의 느린 행동은 이미 마초이기를 포기했다. 더운 여름에 경선의 그림자나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녀와 벌이는 새우깡에 소주한잔이 더 반가운 인정 넘치는 마초들이다.

경선이 금고털이로 잘나가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노땅 형사 마빡(이영후 분)은 신참 형사에게 이것 저것 무시당하면서까지 아직도 투견판을 맴돈다. 이유는 평생을 쫓는 KGB를 꼭 자신의 손으로 잡아 넣겠다는 집념의 마초이기 때문이다.

웨이터계의 새로운 전설, 채민수(류승범 분)와 그의 딸마니들은 뒷골목에서 잔재주와 잔머리로 일찍 살아

가는 법을 익힌 어린 양아치들이다. 가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는 그는 투견판의 '한탕'을 위해 마빡형사의 꼬나풀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 폼나는 마초를 꿈꾼다.

23세 류승범부터 65세 친구까지 출연

영화 <피도 눈물도 없이>에는 23세의 젊은 배우 류승범에서 베테랑 연기자 65세의 친구까지 30여년을 뛰어넘은 친구세대의 다양한 연기자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는 70, 80년대 한국영화에 애정을 갖는 감독의 색깔인 동시에 친구세대의 각각의 카리스마와 연기의 다양성을 영화 안에 느와르 액션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의도다. 이들은 의상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화려한 색깔 양복에 운동화를 신는 일명 '노땅 패션'과 현대 젊은이들의 '화려한 패션' 등 이들 개성의 차이는 영화의 또다른 볼거리다.

또 그동안 한국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낮선 장소가 많이 등장한다. 영화의 주요 배경지가 되는 폐선내부의 투견장이 대표적. 투견장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수렴하는 차갑고 음산한 지옥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색바랜 붉은빛과 자욱한 안개의 도시 인천은 느와르적인 도시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인천항의 독특한 분위기와 차이나타운 거리,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아파트와 좁고 어두운 골목길은 비정하고 을씨년스러운 <피도 눈물도 없이>라는 제목과도 잘 어울린다. **문**

왜 산천을 보호해야 하는가?

새벽부터 아들 진수가 준비를 서두르라고 보채더니, 나와 아내가 채 준비를 끝내기도 전에 진수는 문가에 서서 우리를 불러댔다. 진수는 얼마 전 학교에서 동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고 했다. 사실 서울 밖을 벗어나 본 일이 별로 없었지만, 아이는 자기가 본 곳 중에서 최고라고, 정말로 가봐야 한다며 나를 계속 졸라댔다. “아빠, 그 비디오를 보니까 동강은 절대로 동강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수의 말대로 절대로 동강나서는 안 되는 곳, 동강을 향해 차를 몰았다.

사실 진수의 투정이 없었더라도 아내와 진수를 데리고 다시 한 번 동강에 가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나는 댐 공사를 맡았던 H엔지니어링 기술팀의 일원으로 벌써 몇 해 전에 댐 예정지를 조사하기 위해 동강에 갔더랬다. 애초의 계획대로였다면 오는 2001년 98미터 높이의 댐이 완공되면 동강 줄기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평창군 광하리에서 영월군 만지리까지 52km 구간이 7억t 규모의 거대한 인공호수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차 나갔던 동강은 개발의 논리라면 자연파괴는 당연하다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말없이 느끼게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조사를 나간 우리들은 냇을 잃고 강줄기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수 천년 흘러 내린 물살이 쌓아올린 흰 자갈밭에서 두루미 떼가 새하얀 몸을 날아오르면, 그 흰빛을 깨고 검은 날개의 채두루미 한 쌍이 수백 미터 깎아지른 석회암 협곡을 유유히 가로질렀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기암괴석의 비경을 감싸안은 동강이었다. 풀섶에서 이따금 물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호사비오리들의 성급한 몸짓과 강 양쪽을 잇는 쇠줄을 끌어 배를 건너는 늙은 사공의 힘겨운 기침소리마저 정적의 일부로 느껴질 정도였다. 강을 바라보며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자연의 일 부일 뿐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나는 그간 맡았던 업무에서 손을 떼고 다른 기술팀으로 옮겨가야 했으나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랐다. 역설적이게도 어라 연 계곡 바로 아래, 영월군 만지리에 댐막이 공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동강이 왜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아빠, 동강에 가면 수달도 있다는데 우리도 그거 볼 수 있을까?”

“우리 진수가 동강에 가서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풀이나 꽃도 함부로 꺾지 않고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겠지.”

“당연하죠, 아빠, 난 수달이 동강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는걸요.”

아침 일찍 서둘렀는지 점심도 먹기 전에 영월에 도착했다. 고속도로에서는 막히지 않더니 막상 영월에 도착하자 웬 일인지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단위 관광객이 온 듯 관광버스가 끝도 없이 줄을 잇고 있었다. 간신히 차에서 내려 있을 때 나는 얼굴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강가를 따라 죽 늘어선 음식점들, 강물 위에는 섬세강변을 향해 내려가는 래프팅 보트들, 강변을 따라 흐르는 오물이며 쓰레기들이 새로운 동강의 풍경이 되어 있었다.

“아빠, 여기가 동강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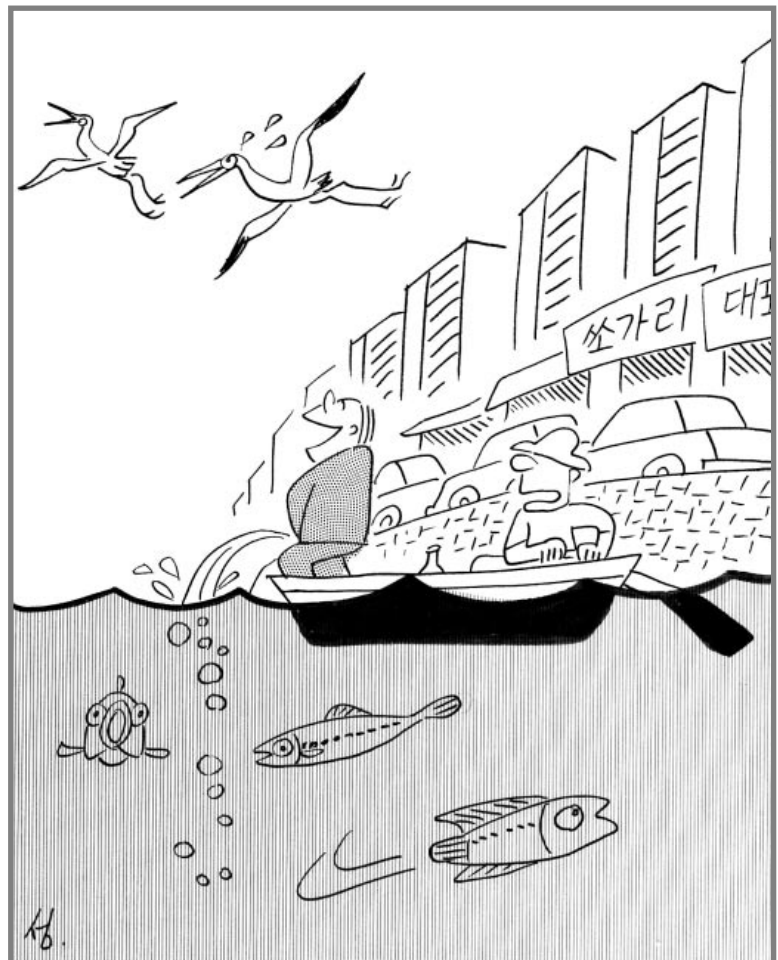
아이는 이런 곳에 수달이 있을 턱이 없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수달이나 어름치는 커녕 그 흔하던 메기나 통수같은 물고기와 비오리도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하구로 내려가면 좀 낫겠지 싶어 아이와 아내의 손을 잡고 내려가 보았으나, 강물에는 배설물까지 둥둥 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7시간의 래프팅 코스 동안 화장실이 없어 물 속에 뛰어 들어 볼일을 보거나, 보트를 강변에 대고 인근 밭에다 배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것이 비만 오면 강물로 스며들어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동강의 최대 오염원은 사람인 셈이었다.

산천은 사람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산천은 온갖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다. 산천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관광거리 이전에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목숨만 걸린 문제가 아니다. 동강의 물이 오염돼 어름치가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 어름치가 마시는 물이나 사람이 마시는 물이 같은 물인 까닭이다.

“아빠, 여기가 동강 맞아요? 수달은 커녕 사람도 여기서 못살겠어요.”

아이가 맞잡은 손을 흔들며 다시 물었다. 나는 어떻게든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냥 아이만 내려다 보았다. 잔뜩 찡그린 아이한테 동강을 자랑할 명분이 없었다. ㄹ

〈전국문화원연합회 발간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중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문화원연합회 2002년도 사업확정

전국문화원연합회는 1월 30일 제41차 정기총회를 열고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200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전국문화원연합회의 2002년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지방문화원 원장연수 : 6월중(1박2일) 214개 지방문화원 원장 연수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연수 : 3월중(2박3일), 금강산에서 연수

△지방문화원 간사연수 : 7월 하순, 214개 문화원 간사에게 실무교육

△사이버 문화관 관리 : 연합회 DB자료, 인터넷 서비스, '2001, 지역문화의 해' 웹사이트 이첩운영 등 지역문화 정보제공

△우수문화원 관계자 해외연수

- 지방문화원장 해외 연수 : 20명, 터기·그리스·스페인 연수

-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일본 공민관 연수 : 40명 일본 공민관 연수

△연합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 백서발간 및 기념행사

△전국향토문화 연구·연찬 : 5월~10월 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전국향토문화 연구발표회 : 향토사 연구 논문 공모 및 시상·발표회

△격월간 '우리문화' 발간 : 매 홀수달(6회) 발간

△국제문화교류 : 제4차 중국연변 조선족 민족전통음악제, 8월중(5박6일)

△지방문화원 수첩제작 배포 : 2000부 제작 배포

문화원 복지 기금 개정

■ 개정이유

기금증식(2000년말 34,123,690원-2001년말 49,076,839원)에 맞추어 복지기금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

■ 개정내용

문화원장·사무국장에 대한 기금지급액은 종전과 같으며, 지급 대상자에 연합회 직원 및 지방문화원 간사등을 새로이 추가함.



■ 지방문화원 복지기금 지급기준액 명세(안)

(단위:천원)

구 분	원 장	사무국장	간 사
퇴직	250	150	100
중병	150	10	50
자녀결혼	100	50	50
본인결혼	-	100	50
부모상	100	100	50
재직중사망	400	300	200
상배	150	100	50

※ 중병의 경우 입원 2개월 이상 시에만 지급한다.

※ 사무국장·간사는 근속연수 1년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지방문화원 간사는 연도중 1문화원 1명으로 한정한다.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금일봉을 지급한다.

동작문화원

컴퓨터 강좌에 중장년층 수강신청 쇄도

지난 2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동작문화대학 수강생 모집에 3천4백67명이 신청해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컴퓨터 강좌에는 중장년층등 2백88명이 수강 신청이 쇄도해 인터넷 시대를 실감하기에 충분했다. 동작문화원이 운영하는 동작문화대학은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학교로 일반 대학처럼 학사모와 기운을 입고 졸업식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동작문화대학 컴퓨터 강좌는 초급 5개반과 중급 3개반등 모두 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좌에 따라 일주일에 2시간씩 2회(화·목요일, 월·수요일) 실시된다. 강좌내용은 초급반의 경우 인터넷·한글97·윈도우, 중급반의 경우 인터넷·유틸리티·HTML·엑셀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강료는 3개월에 초급반 6만원, 중급반 9만원이다. 이윤선 동작문화원 사무국장은 "현재 문화대학에 설치해 놓은 고성능 컴퓨터 40대 말고도 사당동에 별도로 마련된 컴퓨터교실에도 20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이미 1수강생 1PC 체제를 갖춰놓은 상태"라고 소개했다.



마포문화원

마포문화유적 제2집 출판기념회

마포문화원은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 마포경찰서 대강당에서 '마포문화유적 제2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부로 나뉘어 열린 출판기념회는 고만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제1부에서 사물놀이반·가야금반·하모니카반의 식전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2부에서는 이선재 마포문화원장의 내빈소개와, 집필자 이승창씨에 대한 감사패 전달, 노승환 마포구청장의 축사, 이승창씨의 서평순으로 열렸다. 한편 이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마포는 과거 팔도의 화물선이 드나들던 문물의 집산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 정보가 오가던 문화의 보고"라며 "조선조 말엽 당대의 영웅이요 풍운아로 불리기도 했던 고종황제의 생부(生父) 흥선대원군 '이하응' 그분도 한때 우리 고장 마포 공덕동에 수장(壽藏)을 정하고 그 위에 별장 아소정을 세워 거처했는가 하면 고려시대부터 관리의 녹봉을 저장 관리하던 관사 광흥창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우리 마포"라고 밝혔다.



강북문화원

문화원 이전

강북문화원은 최근 문화원을 미아5동에서 수유6동으로 이전했다.

△주소 : (142-076)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130-10
강북구민회관 본관 3층 △전화 : (02)999-8109 △팩스 : (02)999-8909

광진문화원

이동표 광진문화원장 취임

광진문화원은 2월 22일 이동표 문화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광진문화원은 또 2월 1일자로 박승호과장을 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 안현 주임을 계장으로 승진시켰으며 전 한국문화학교 사무국 담당보인 김종열씨를 간사로 채용했다.



도봉문화원

이영철 도봉문화원장 재선

이영철 도봉문화원장은 지난 2월 5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제8차 정기총회에서 3대 문화원장에 재선됐다.



기장문화원

‘기장문화’ 창간호 출판 기념식

기장문화원은 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원 강당에서 제5차 정기총회 및 문화원지인 ‘기장문화’ 창간호 출판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대전동구문화원

동구문화원

대전동구문화원은 1월 22일 오후 2시 문화원 광장에서 현판식 및 신임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원장에는 신호철씨가 선출됐고 사무국장에는 지하영씨가 임명됐다. 신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대의원 8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통해 경선으로 선출됐다.



시흥문화원

남인택 신임 시흥문화원장

시흥문화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임시총회를 통해 원장에 남인택 시흥문화원 감사를 선출했다.



서천문화원

문화원장 이 · 취임식

서천문화원은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원장 이 · 취임식을 가졌다. 서천문화원은 노공래 문화원장이 이임하고 이상용 문화원장이 취임했다.



공주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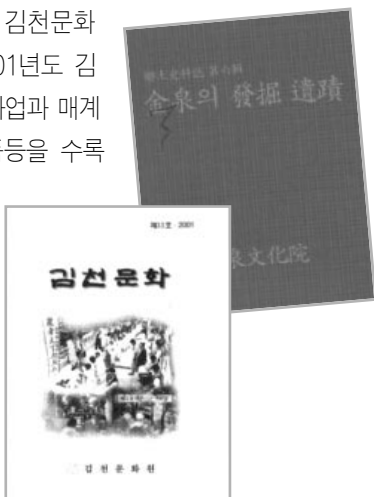
음악잔치 · 미술전시 열어

공주문화원은 2월 한달동안 옴니버스 음악학원 유치부의 음악회 · 재롱잔치를 비롯 헤어 세미나, 두손 미술속셈음악학원 졸업전시 및 졸업식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김천문화원

김천문화 제33호 향토사료지 제6집 발간

김천문화원에서는 김천문화 제33호와 향토사료지 제6집을 발간했다. 김천문화 제33호에는 2001년도 김천문화원 각종 사업과 매계 백일장 입상작품등을 수록했으며 향토사료지 제6집에는 김천 지역에서 발굴된 각종 유물을 수록하고 역사적 가치와 발굴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문화학교 수료생 작품집' 발간



김천문화원에서는 2001년도 '제4기 문화학교'에 참가한 수강생들의 작품을 종합 정리해 수료생 작품집을 발간했다.

'탁상용 캘린더' 제작 배포



김천문화원에서는 2001년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한 각종 문화행사와 지역 문화재를 수록한 탁상용 달력을 제작해 배부했다.

진해문화원

2002년 진해문화학교 제2기 실버컴퓨터교실 수료식

진해문화원은 2002년 진해문화학교 제2기 실버컴퓨터교실 수료식을 지난 1월 16일(수) 오전 11시에 경남은행 진해지점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진해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실버컴퓨터교실은 지난 2001년 11월 12일부터 2002년 1월 16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매주 월·화·수요일까지 매주 3일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컴퓨터의 기초과정을 배웠다. 수료생 김용길(74세, 태백동) 외 24명은 인터넷 과정도 신청해 컴퓨터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박차생 문화원장은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남자 72세, 여자 78세로 노령사회에 진입했으므로 보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바꾸고 젊은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물욕과 명예욕을 버리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자고 강조했다.

한편 진해문화원은 지역사회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각 중·고등학교장의 추천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졸업생을 1명씩 추천받아 2월 8일부터 15일까지 각급학교 졸업식장에서 박차생 문화원장 명의의 표창장과 광개토대왕의 모조품 1/33축소판을 부상으로 전수했다.



의령문화원

2002년도 정기총회 개최

의령문화원은 1월 28일 의령군청 대회의실에서 200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원용 의령군수, 김순곤 의회회장, 권태우 도의원 등 각급기관단체장 및 문화원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과 2002년도 중요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는데 당초예산 9,010만원으로 사업비에 4,800만원, 관리비에 4,21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중요사업으로는 향토사료수집 및 사료집 발행, 의병제전기간중 12개 문화예술 행사, 문화원부설 문화학교운영,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제2회군민회호대회, 역사문화유적지 답사, 학생독서감상문 공모, 찾아가는 전통문화강좌, 의령문화의 계속발행 등 16개종목의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이날 총회참석자들에게는 의령의 역사문화유적, 우리 고장 땅이름 등 향토사료집도 배부했다. 이날 허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문화복지시대에 대처하면서 향토문화예술의 중심제 역할을 하는 한편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문화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문화원

이창교 문경문화원장 재선

이창교 문경문화원장(경북지회장)은 최근 정기총회를 통해 문화원장에 재선됐다



함양문화원

유영수 신임사무국장 임명

함양문화원은 1월 1일자로 심원섭 사무국장 후임에 유영수씨를 임명했다.

김해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합동발표회

김해문화원 문화학교는 2001년 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년동안 개최한 문화학교 수료식과 수강생 합동발표회를 2월 19일 개최했다.

사군자, 서예, 고전무용, 풍물, 가야금, 대금, 한국화, 사진, 발레, 시조창반 등 총 15과목 220여명의 수강생들이 수료를 하며 우수한 수강생들에게 김해시장상 및 문화원장상을 수여하고, 공연부문과 전시부문으로 나누어 합동발표회를 가졌다. 전시작품은 19일부터 24일까지 문화원 전시실에서 전시했다.

한편 김해문화원은 민족의 큰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잊혀져 가는 전통풍습을 계승하고 임오년 한해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고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개최했다.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전승활동 우수보유자(단체) 표창및특별장려금지급

문화재청은 2001년 12월 27일(목) 지난 3년간 중요무형문화재 부문별로 전승활동이 우수한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선정하고 이들 모두에게 전승지원 특별장려금으로 총1억8백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에서 최우수 보유자로 선정된 2명의 보유자와 3개 보유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재청 회의실에서 문화재청장 표창과 더불어 전승지원 특별장려금 지급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 수상자 내역(보유자 2, 보유단체 3)

구 분	순위	종목 번호	명 칭	고성오광대	이윤석(51세)
예능개인	1위	제27호	승 무	보유자(보존회장)	비 고
공 예	1위	제108호	목조각장	정재만(53세)	
예능단체	1위	제43호	수영야류	박찬수(52세)	
"	2위	제40호	학연화대합설	태덕수(72세)	
"	3위	제7호	무	이홍구(61세)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우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선정하게 된 것은 지난 '99년 말 제도개선 이후 실질적인 전승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이다.

문화재청에서는 그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실적과 문화재청에서 지원한 실적 등을 토대로 활동실적을 검토·분석하고 자체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전승취약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배려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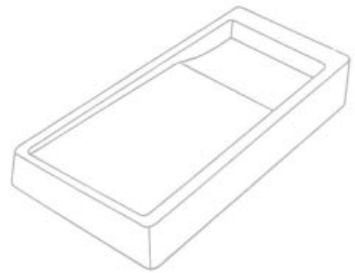
또한 2000년 이후 월정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신규인정(선정) 전승자(120명)에 대해서도 전수교육 지원금으로 3억6천2백만원을 지급했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도 전통문화 보급선양을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전승기반 조성에 힘쓰는 한편, 중요무형 문화재 보유자들이 더욱 우대 받고 존경받는 풍토 마련을 위해 특히 전승활동을 활발히 하는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 장려금 지급제도를 연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보유자 특별생계지원은 1999년 말 이후 매년 2차례 해오고 있으며 2001년 하반기에도 보유자 생활실태 조사를 토대로 21명에게 4천7백50만원을 지원했다.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장비 지원은 개인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승여건이 취약한 56개 보유단체를 대상으로 각종악기와 복장 등의 구입을 위해 2억9천7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인류구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제례는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행사 일환으로 특별 재현될 예정인데, 이를 위한 제작비 1억2천4백억원이 지원된다.

한국벼루의 문화예술적 성향(性向)에 대한 고찰



경주에 숨어 있는 향토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한데 모았다. 이 책에는 △ '花郎世紀'를 중심으로 본 新羅 天神敎와 神仙合一組織思想에서 형성한 花郎徒組織의 創設過程 △ 필사본 '화랑세기' 樂歌舞 관련 기사 △ 慶州 東川洞 四方佛塔身石에 관한 고찰 △ 신라 통일기 토함산유적의 역사적 성격 △ 金石文을 통해 본 新羅 書藝의 흐름(Ⅱ) △ 환경오염에 의한 석조 문화재의 부식훼손에 대한 비교 연구 △ 慶州의 院祠와 亭齋(4) △ 歸來亭과 三槐亭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 自覺하는 女性과 그들에 대한 종교적 關心 △ 경주지역의 고개 조사(Ⅱ) △ 한국벼루의 문화예술적 性向에 대한 고찰 △ 사투리로 떠올리는 鄉愁(4) 등 12편의 논문이 담겨져 있다. 표지에는 조선 정조 22년에 제작된 경주 읍성도를 실었다. 302페이지, 4·6배판.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刊.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향토사학자 손원조씨가 쓴 논문 '한국 벼루의 문화예술적 性向에 대한 고찰'을 소개한다.



머리말

벼루는 단지 먹을 갈아서 글씨를 쓰는데 사용된 단순한 문방구(文房具)로서 뿐만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의미 또한 사뭇 깊고 넓다고 하겠다.

학문을 중하게 여기며 가까이 해오던 우리네 선비라면 결코 떨어질 수 없었던 친구, 또는 수족(手足)과도 같았던 존재가 곧 문방사우(文房四友)로 불리는 종이(紙)·붓(筆)·먹(墨)·벼루(硯)였으며 이 가운데서도 선비들의 멋과 예지(叡智)까지 배어있는 것이 벼루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크고 작은 한 점 한 점의 벼루에는 이를 애용했던 옛 선비들의 풍류(風流)와 예술적 정취(情趣)도 함께 배어 있게 마련일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필자는 지난 3월 말부터 40일 간에 걸쳐 그동안 정성을 기울여 수집했던 우리나라의 옛 벼루 250여 점 가운데서 선별한 170여 점을 출품해 <한국의 옛 벼루전>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열었으며 이를 계기로 벼루의 기원과 역사, 산지와 종류, 그 명칭 등과 함께 이번 특별전시회의 공과(功過)와 필자의 벼루 수집 과정 등을 주제로 벼루에 대해 줄고를 준비했다.

벼루의 기원과 역사

벼루는 그 목적이 먹을 갈아 글씨를 쓰기 위한 도구이므로 먹을 사용하게 되면서 비로소 만들어졌을 것이란 이치는 누구나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그 기록이 명확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문방사보(文房四譜)에 제홍씨연(帝鴻氏硯)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황제가 옥 한 덩이를 얻어 묵해(墨海 : 벼루의 다른 명칭)를 만들고 그 위에 제홍씨지연(帝鴻氏之硯)이라고 벼루의 명(銘)을 새겼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황제는 중국 상고사에 나오는 삼황(三皇 : 天皇 地皇 人皇)과 오제(五帝)의 한 사람이므로 신빙성이 희박하다.

또 공자가 쓰던 벼루(孔子硯)라고 전해오던 지성연(至聖硯)에 관해서도 오즙지(吳楫之)라는 사람이 쓴 [종정기(從征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노(魯)나라의 공자를 모신 사당에 석연(石硯)이 하나 있었는데 만든지가 매우 오래고 질박한 점으로 미뤄봐 공자가 생존시에 쓰던 벼루다.”

그러나 이도 공자시대엔 대쪽에 옷으로 글을 쓰던 때이므로 벼루가 있을 수가 없어 신뢰성이 없다.

다만 기원전 217년 진나라 시황(始皇) 30년의 진묘(秦墓)로 추정되는 무덤인 호북성의 운몽지역(雲夢地域) 근처 수호지(睡虎地) 11호 묘에서 지난 75년 12월에 돌벼루 한 점이 출토되자 이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국벼루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나라 벼루의 역사는 약2000년 전으로 추정돼 중국보다는 약200년이 뒤떨어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나라 벼루의 역사를 더듬어 봐도 삼국시대 때는 물론 통일신라시 때까지도 벼루에 대한 자세한 자료나 문헌은 일천(一淺)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실적 또한 아직도 미미하다는 표현이 알맞을 것 같다 하겠다.

기록에 나오는 사례를 열거해 보면 일본의 나라현립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 부속박물관에 소장된 백제삼채원면연(百濟三彩圓面硯)을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한국벼루로 부르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인 경주안압지 출토품인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다족연(圓形多足硯)과 이화여대박물관에 소장된 가야시대의 원형도연(圓形陶硯)과 국립부여박물관에 전시중인 충남 부여시 관북리 출토품인 백제시대 돌벼루(石硯)등이 출토지와 명문(銘文)으로 확인된 몇 안되는 우리나라 벼루의 대부분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의 벼루는 구도의 발상과 조각의 문양(文樣) 등에서 중국벼루의 천편일률적(千扁一律的)인데 비해 정교(精巧)함이 따르지 못하는 간소미와 기발한 착상의 추상화적인 경지까지를 한꺼번에 읽을 수 있기에 우리나라의 벼루가 미술품으로서 중국벼루를 압도(壓到)할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해 본다.

한국 벼루의 종류와 산지 및 명칭

우리나라 벼루의 종류 또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 재료(材料)에 따라 종류가 나뉘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선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는 흙으로 만든 토연(土硯)으로 시작해 도연(陶硯)위주로 만들어졌던 한국벼루는 고려시대에 이르면서 석연시대(石硯時代)로 접어드는데 그 마저도 석질이 확실하지는 않으며 현재 고려시대의 벼루 자체는 감별(鑑別)조차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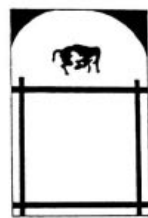
한국벼루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흙과 도자기를 비롯해 기와(瓦), 쇠(鐵), 전돌(磚), 구리(銅), 나무(木), 대나무(竹), 비취, 수정(水晶)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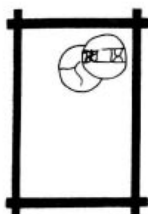
구현반도연(鳩獻潘桃硯)



운월연(雲月硯)



정전경우연(井田耕牛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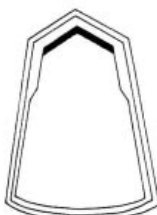
정전연(井田硯)



와양연(瓦樣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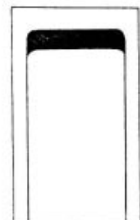
천성상운연(天成祥雲硯)



규장연(圭樟硯)



천연연(天然硯)



장방연(長方硯)



있으나 역시 가장 많은 종류는 돌(石)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명칭도 재료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 도자기로 만들면 도연(陶硯), 대나무벼루는 죽연(竹硯), 수정벼루는 수정연(水晶硯) 등으로 명칭이 정해지고 있으며 옛 선비들이 외출할 때 도포자락에 넣어 다녔다고 도포연(일명 소매연), 또는 촌연(寸硯)으로 불리는 가로 3cm에 세로 5cm 규모의 앙증맞은 벼루도 있고, 만든 사람과 사용자·애장가(愛藏家)등 그 내용과 사연에 따라 한 점 벼루가 보물로도 취급

되고 가보(家寶)로서 미술품의 가치를 지니게도 된다.

더욱이 해동연(海東硯)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벼루의 명칭은 사용했던 연대와 돌의 산지, 형태 등에 따라 천태만상(千態萬像)이라 모두 열거하기 조차 어렵다.

우선 모양과 형태에 따른 형제(形制)에 따라 실용연(實用硯)과 완상연(玩常硯)으로 구분한다. 또한 석재(石材)의 생산지에 따라 중국에서 단계석(端溪石)과 흡주석(州石)으로 호칭하듯 우리나라도 압록강 연안의 위원에서 난다고 해 위원석(渭原石), 충남의 남포에서 난다는 뜻으로 남포오석(藍浦烏石), 충북의 상산석(常山石), 경북의 고산석(高山石) 등으로 구분해 부르고 있으며 한국벼루의 산지 또한 전국의 지역 이름에 맞춰 수없이 많다.

특히 명칭으로는 벼루 각각의 조각의 형태와 형상에 따라 이름지어지는가 하면 석질(石質)에 따라 그 명칭이 정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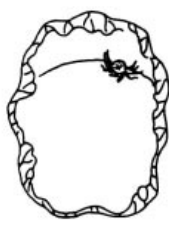
물집 모양이 복숭아를 닮도록 조각했기에 도연(桃硯)으로 부르는가 하면, 포도를 조각해 포도연(葡萄硯), 각종 벌레 모양을 조각해 충연(蟲硯), 봉어나 잉어 등 고기의 조각이 있어 어연(魚硯), 탐스런 매화를 조각해 매화연(梅花硯)으로 부르며, 해와 달과 용을 조각했기에 일월용연(日月龍硯), 백두산 천지를 본따 천지연(天池硯), 새각시의 족두리 모양을 해 낭두연(娘頭硯) 등이 있다. 거기다 신성한 거북을 조각해 신귀연(神龜硯), 난과 달을 조각했기에 난월연(蘭月硯)으로 부르며 추운 겨울의 세 가지 식물인 소나무·대나무·매화나무를 새긴 삼우연(三友硯)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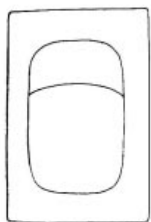
천보구여연(天保九如硯)



불수연(佛手硯)



화중군자연(花中君子硯)



서원연(書院硯)



일엽연(一葉硯)



서원연(書院硯)



북송종연(北宋鐘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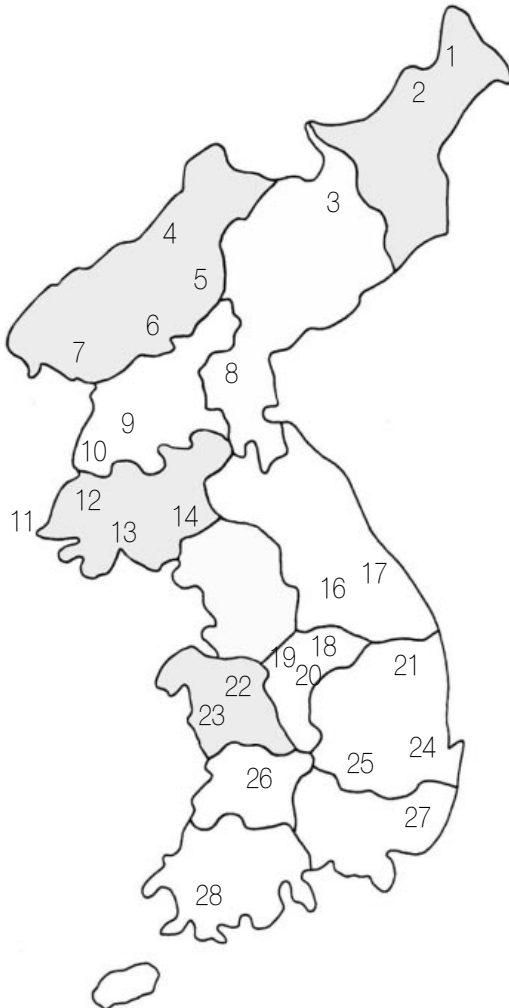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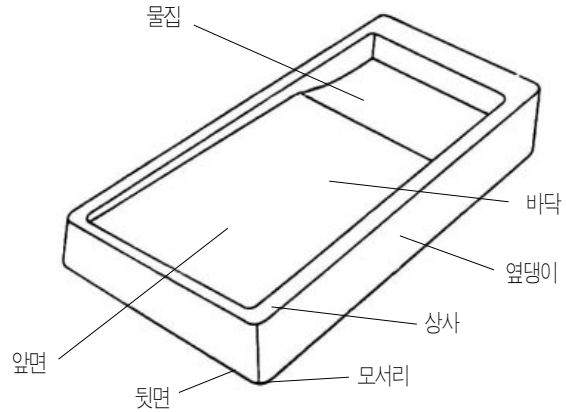
금낭봉사연(錦囊封事硯)



사릉연(四麥硯)

으로 부르는데 한국벼루의 명칭에는 이 밖에도 동식물의 모양과 천지만물의 형상이 두루 이용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 모두는 장인(匠人)의 정신이 깃든 조각의 섬세함과 정교함이 빼어나 더욱 우리나라 벼루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까닭이 된다.

또한 벼루들에서 나오는 각종 색상에 따라 자석(紫石), 녹색(綠石)으로 구분하며 구름무늬가 있어 화초석(花草石)으로 불리기도 한다.문



- | | |
|---------------|----------------|
| 1. 종성석(鍾城石) | 11. 연강석(淵康石) |
| 2. 무산석(茂山石) | 12. 장연석(長淵石) |
| 3. 갑산석(甲山石) | 13. 해주석(海州石) |
| 4. 위원석(渭原石) | 14. 장단석(長端石) |
| 5. 팍산석(郭山石) | 15. 파주석(坡州石) |
| 6. 희천석(熙川石) | 16. 평창석(平昌石) |
| 7. 선천석(宣川石) | 17. 정선석(旌善石) |
| 8. 고원석(高原石) | 18. 단양석(丹陽石) |
| 9. 대동강석(大同江石) | 19. 상산석(常山石) |
| 10. 풍천석(豐川石) | 20. 도안석(道安石) |
| 21. 안동석(安東石) | 22. 계룡산석(鷄龍山石) |
| 23. 남포석(藍浦石) | 24. 경주석(慶州石) |
| 25. 고령석(高靈石) | 26. 장수석(長水石) |
| 27. 언양석(彦陽石) | 28. 해남석(海南石) |



한국벼루 250여점 소장하고 있는 손원조씨

지난 71년부터 기자(記者)라는 직업을 수행하면서 하루하루마다 갖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부딪치는 현실가운데서도 불현듯 직업과 유관(有關)한데다 우리네 선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문방사우(文房四友)가 생각났으며 이 가운데서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실체인 벼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선비들이 아꼈으며 애용해 오던 벼루에는 그들의 체취가 남아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벼루를 모아보자는 생각에 머물러 벼루 수집에 나선 길이 어언 30년이란 연륜이 흘렀으며 현재 250여 점에 이르는 갖가지 한국고연(韓國古硯)을 소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뒤돌아 보면 30여 년 전 남들은 벼루에 관심조차 없을 당시 필자가 벼루 수집에 나선 동기를 만든 것은 하루에도 수십 장씩 원고지를 매워야만 하는 필자의 직업의식과 문방사우 중의 하나인 벼루의 인연이라고나 할까? 당시엔 벼루 자체가 그 가치를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채 이가 빠지고 흠이 묻은 모양으로 문화재 전문취급점으로 섞여 들어간 뒤 각종 골동품류의 아래 틈새에 끼어 있을 정도였으며 이 같은 여건이었기에 70년대에는 벼루의 유통경로 또한 문화재취급점을 거쳐서야 소장자에게로 연결됐다.

한달 월급이 겨우 2만원 정도이던 때부터 벼루 수집에 나섰던 필자는 봉급생활자라는 한계에 묶여 처음부터 수집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으나 달이 바뀌고 해가 거듭될수록 수집한 벼루 수가 늘자 벼루에 대한 애착과 정성 또한 이에 정비례하면서 한때는 주말을 이용해 충북 단양지역까지 벼루 탐방(探訪)을 다녀 오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70년대 말까지는 한 달이면 몇 점씩의 벼루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90년대 들면서는 몇 달이 걸려도 겨우 한 두점의 벼루를 구하는데 노력이

몇 배가 드는 현실로 바뀌었으니 요즘은 벼루 구하기가 토기류나 도자기류를 수집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든다는 평을 들을 정도다.

이처럼 강산이 세 번쯤 변해가는 현재까지 오는 동안 필자의 벼루수집 역정(歷程)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사연 또한 적지 않게 사실이다. 그 사연을 요약해 보면 단골

문화재전문취급점마다 벼루 수집을 의뢰해 놓으면 업주들은 날개로 벼루를 파는 상인들부터 벼루를 구입한 뒤 전화로 연락을 해주게 되며, 퇴근 후 업소를 방문, 커피 한 잔을 나눈 뒤 벼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필자의 벼루수집은 시작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벼루를 수집하면서 필자가 겪은 어려움은 중첩됐으니 격이 높은 벼루 한 점을 만날 때면 그 가격 또한 높아지게 돼 주머니 사정이 허락치 않던 필자는 부득이 부족되는 벼루값을 외상장부에 기록해 놓게 됐다.

이같이 시작된 필자의 벼루수집 역사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외상장부 역사도 현재까지 이어져 그 효력을 지속하고 있다면 듣는 이들은 이 사실을 믿어 줄까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필자는 특히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벼루를 수집해 오면서 당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계획을 갖고 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 지라도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 경주지역에 민속박물관이나 향토박물관이 세워져 개관될 때에 맞춰 그 시설에다 벼루전시실이나 벼루전시관 한 칸을 마련해서는 반평생 힘 기울여 수집한 벼루를 전시시켜 우리네 문화유산을 사랑하고 조상의 선비정신을 아끼며 경주인임을 긍지로 삼고 사는 모든 이들과 역사도시인 경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한국의 옛 벼루를 두루 관람시켜 모두가 함께 선조의 정취와 예지(叡智)를 공유할 것이라고 **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창립된 1980년 4월 1일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재단이 걸어온 자취를 수록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제1장 재단20년의 발자취, 제2장 전통문화의 보급신앙, 제3장 한국의 집 운영, 제4장 문화재 조사연구 사업, 제5장 전통문화 보급확산을 위한 시설운영, 제6장 창립20주년 현황과 과제 등을 싣고 있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20년사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다. 특히 내용을 생생하게 하는 현장사진과 잘 정리된 표가 있어 각 장의 내용이 쉽게 읽힌다.



경기향토사학 제6권 전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경기도에 관련된 향토사논문을 묶어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 책에 실린 논문은 김민수 씨의 漢四郡 初期 疆域에 관한 研究, 홍정덕 씨의 '穡經' 전거 연구, 정우영 씨의 운계사 고석비와 감악산 무속신앙의 시원, 임병규 씨의 석영(夕影) 안석주(安碩柱)의 예술세계, 소진섭 씨의 掘浦川과 민속신앙, 이명수 씨의 태조 이성계의 逍遙山 別宮 生活의 考, 안국승 씨의 河北 慰禮城에 대한 고찰, 진한용 씨의 靜菴先生을 配享한 書院·祠宇에 관한 연구, 유천형 씨의 성호 이익선생의 생거지 조사 연구 등 9편이다.



連川實錄 연천군 향토자료집 연천군·연천문화원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연천 관련 사료들을 발췌해 만든 책. 연천과 관련된 기사를 가능한 원문 그대로 싣고 있으며 내용은 크게 연혁·관리·경제·군사·사회·유적·인물로 분류됐고, 분류된 각 기사마다 내용에 맞는 제목의 글이 있다. 어색하거나 난해한 한자어와 용어는 일부 수정해 풀어쓰고 있으며 고유명사나 어려운 관용어구는 한자를 병기해 간단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이 책의 발간은 연천군민들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많은 도움과 지혜를 줄 것이다.



둔산 새로운 이정표 대전서구문화원

서구문화 총서13. 서구 둔산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고 둔산의 발전상을 재조명해 정리했다. 그동안 서구문화총서 시리즈를 통해 부분적으로 다뤄져오던 둔산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이 책에서는 역사, 면적, 지리, 환경, 인물, 성씨 등을 조망하고 민속을 포함한 세시풍속, 민담, 전설, 민간신앙, 생산풍습, 지명과 풍속을 상세히 기록해 과거 속의 둔산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또 둔산의 현대모습, 행정도시로서의 둔산모습 등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둔산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다산 정약용의 포항 유배시가 포항문화원

1801년 포항의 장기에 유배됐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었던 시를 재조명한 책이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부 도입부분에서는 다산이 포항과 인연을 맺은 내용을 쉽게 풀고 쓰고 있으며 제2부 자료부분에서는 포항에서 지어진 다산의 시들을 소개하고 번역하고 있다. 제3부 연구부분에서는 저자가 다산의 장기 적거시에 대한 검토논문을 수정해 다산 장기 적거시의 배경, 다산 장기풍물시의 내용과 태도, 다산 장기풍물시의 문학사적 위치를 싣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다산 포항 적거시 원문을 붙였다. 김윤규 著



의령의 역사문화유적 의령문화원

의령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던 각종문화 유산을 잘 정리해 체계화한 안내서다. 의령의 연혁과 지형지세, 행정구역, 문화재를 소개함에 있어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칼라사진, 옛지도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다. 의령읍을 비롯한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용덕면, 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궁류면, 유곡면 등 각 지역별로 깔끔하게 편집해 가독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 책은 모든 군민과 향우, 그리고 의령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문화의 진실한 내면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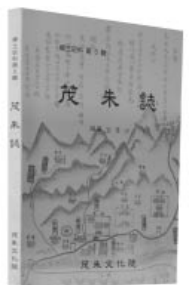
忠州의 郷土史(마을신앙편) 충주문화원

충주교장 도처에 살아 숨쉬는 마을신앙과 역사, 문화의 흔적을 모은 책. 마을신앙은 인간의 종교적 욕구에서 자연발생한 민간신앙으로 산신제, 성황제, 용신제 등을 통해 가정의 안녕과 화목을 꾀하고 부락 공동체를 통해 마을의 친화단결을 도모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계승되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은 그 흔적을 모두 찾아 주덕읍·상모면 등 읍·면은 물론 시내에 남아 있는 마을신앙까지도 모두 찾아 자세히 현장사진과 함께 자세히 싣고 있다.



거창의 건축문화재 거창문화원

현재 거창군에 소재하는 향교 1점, 사우 및 서당 10점, 정자 2점, 주거 8점, 당집 1점 등 총 22점의 건축문화재를 일괄 정리했다. 건축문화재는 건립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원형그대로의 보존이 필수적이기에 이 책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전승과 함께 문화재의 원형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자료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한국건축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실증적 자료가 될 것이다. 하종한 지음



茂朱誌 무주문화원

향토사료 제5집. '적성지(천)편', '적성지(지)편'의 국역판에 이어 나온 무주의 역사·지리·문화·풍습·인물 소개서. 한문본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무주부읍지' 등 귀중한 사료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원문을 해석하고 각주를 달았다.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오늘에 재조명라고 향토사와 문화유적, 그리고 민속을 다음세대에 정확히 전승시키는 향토사료집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석 편저



果川 拓本 資料集 과천문화원

현재 과천 경내에 보존된 서화 조각품의 탁본을 수집해 편집한 탁본 자료집. 자료의 종류는 비지(碑誌) 32건, 암각(巖刻) 6건, 현판(懸板) 4건, 기문(記文) 8건, 사진 4건, 시문 4건으로 모두 58건이다. 그 중 비지는 다시 묘비(墓碑) 11건, 선정비(善政碑) 15건, 기념비(記念碑) 5건, 묘지 1건으로 돼 있다. 자료는 탁본을 영인해 제시했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개별 작품마다 사진을 찍고서 해설 및 번역을 곁들였다. 생동감 넘치는 탁본자료의 해설·번역은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충구 국역



우리고장의 抗日運動史 沃溝農民의 抗日抗爭史 군산문화원

군산의 농민 집단 항일운동을 독립운동의 성격으로 명확히 논술했다. 책의 내용은 제1부에선 '우리고장의 시대적 변천사', '개항전과 개항후의 군산', '일인들의 토지의 수탈과 지주', '우리고장의 역사적 시련', '일본인 지주들의 등장', '일인 이민과 간척사업', '쌀의 수탈기지, 군산항'을 다루고 있다. 제2부에선 '우리 고장의 각종 항일저항운동'을, 제3부에선 일인지주에 대한 소작인의 항일저항운동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김양규 著



富平人物史-부평을 빛낸 인물 부평문화원

부평에서 탄생했거나 부평으로 천거했던 충신·열녀·명현들의 고귀한 업적을 수록했다. 내용은 고려시대부터 근세기까지 정사 기록에 충실해 제1장에선 '선정을 베푼 태수', 제2장에선 '부평을 빛낸 인물'을 총망라했다. 제3장에선 충신·지사·효자·효열로 분류해 부평의 충효절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부평에 관련된 역사적 업적과 인맥을 소개하고 있어 부평사의 보조자료로 활용은 물론 향토사 재조명에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준



栗谷思想研究 사단법인 울곡학회·울곡교육원

울곡 선생의 학술사상과 위학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3집 발간 이후 4년만에 나온 '栗谷思想研究' 4집이다. 이번호에서는 장숙필 씨의 '울곡정제설의 특징' 등 6편의 연구 논문과 2001년 40회 울곡제 논문공모에서 입상한 박창용씨의 '栗谷 理氣之妙의 現實代案의 性格' 등 4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그리고 제3회 울곡대사학술부문 수상기념강연인 이동준씨의 '울곡선생의 철학사상과 경제론' 등 3편의 발표문을 함께 게재하고 있다.



보령의 고인돌 대전문화원

보령지역의 청소면·주포면·주교면·청라면·대천3동·성주면·남포면·웅천읍·주산면·미산면 등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을 다시 리·지구별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고인돌마다 지도와 현장검증사진을 하나하나 싣고 있어 현장감이 느껴진다. 이 책에 실린 고인돌의 역사적 흔적을 통해 선사시대 이래 전해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생활풍습을 파악함은 물론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식견을 넓혀 보령문화유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보령문화연구회



작품집 · 선집

당진문화유적총람

당진문화원에서 만든 의식행사용 음악 CD. 1번 트랙에는 데이터가 들어있고 2번 트랙부터는 '국기에 대한 경례음악' 부터 '당진 아가씨'에 이르기까지 의식행사용 음악이 들어있다.

향토인물연구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제16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을 책으로 엮었다. 아천군의 이증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심도 깊게 접근하고 있다.

제27회 학도문화예술대회 우수작품집

문경문화원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행사의 미술·서예산문·운문·피아노·성악·관현악·국악 등의 수상작을 책으로 엮었다.

제4회 과천향토사료전 - 삶의 기록문화

과천문화원과 과천향토사연구회가 작년 11월16~22일까지 7일간 주최한 향토사료전의 행정·사회·산업경제·군사·역사교육·정보통신·문화·체육·신문·방송 등 분야별 전시도록.

제1회 義城書藝大展

의성문화원 주최로 작년 12월 27~29일까지 3일간 의성문화체육관에서 열렸던 서예대전에서 전시됐던 작품들을 책으로 엮었다.

이수(李洙) 전통수의(傳統壽衣) 전시회

작년 12월11~13일까지 3일간 예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됐던 과히 작품전시회 도록. 매장·장단·이불·요·베게·관복 등 이수 선생의 전통수를 남·녀별로 세세하게 컬러 사진으로 싣고 있다.

금정문화원 개원 1주년 기념 금정미술인전

금정지역에서 활동하는 48인의 미술작가들의 서양화·동양화·조각·서예·시각디자인 등 다양한 작품을 작가의 약력과 함께 싣고 있다.

제2회 문화교실회원 작품전

작년 한해 영등포문화원의 문화교실 회원들이 발휘한 기량을 미술·서예·사진·애니메이션·종이공예·꽃꽂이 등 각분야별로 작품집으로 엮었다.

2001 문화시민운동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와 지역별 협의회의에서 2001년의 주요사업추진 실적과 2002년의 추진계획, 일반현황 등을 실은 자료집이다.

國譯 閑山大捷漢詩受賞作選集

역대 한산대첩축제의 한시백일장 수상작들을 국역집대성해 발간한 통영문화원총서 제7집.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214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02-518-1294)
- 종로문화원(02-731-0628)
- 중구문화원(02-775-3001)
- 용산문화원(02-703-0052)
- 성동문화원(02-2290-7714)
- 광진문화원(02-447-9364)
- 동대문문화원(02-2241-9300)
- 중랑문화원(02-492-0066~7)
- 성북문화원(02-765-1611)
- 강북문화원(02-984-8086~7)
- 도봉문화원(02-905-4026)
- 노원문화원(02-938-1244)
- 은평문화원(02-383-9300~2)
- 마포문화원(02-312-1100)
- 양천문화원(02-651-5300)
- 강서문화원(02-3661-8233)
- 동작문화원(02-822-8500)
- 관악문화원(02-885-5975)
- 강남문화원(02-518-1295)
- 송파문화원(02-414-0354)
- 강동문화원(02-476-6681)
- 금천문화원(02-896-8553)
- 영등포문화원(02-846-0155)
- 서대문문화원(02-3217-1592~3)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지회(051-555-1441)
- 동래문화원(051-555-1441)
- 북구낙동문화원(051-301-2710)
- 강서문화원(051-972-6369)
- 연제문화원(051-759-3113)

- 기장문화원(051-724-2224)
- 사상문화원(051-310-4894)
- 금정문화원(051-581-9071~2)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지회(053-744-7950)
- 중구문화원(053-255-5123)
- 달성문화원(053-611-0010)
- 남구문화원(053-652-4450)
- 북구문화원(053-326-2555)
- 서구문화원(053-563-9066)
- 달서구문화원(053-553-4800)
- 동구팔공문화원(053-984-8774)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032-761-2778)
- 부평문화원(032-505-9001)
- 강화문화원(032-932-0011)
- 연수문화원(032-821-6229)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062-527-7701)
- 동구문화원(062-225-5815)
- 서구문화원(062-652-4148)
- 남구문화원(062-361-7256)
- 북구문화원(062-527-7701)
- 광산문화원(062-941-3377)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042-627-7517)
- 동구문화원(042-274-2135)
- 중구문화원(042-256-3684)
- 서구문화원(042-488-5474)
- 유성문화원(042-862-6969)
- 대덕문화원(042-627-7517)

울산광역시

- 울산동구문화원(052-234-2202)
- 울산남구문화원(052-266-3786~7)
- 울주문화원(052-279-0527)
- 울산중구문화원(052-244-2007~8)

경기도

- 경기도지회(031-239-1020)
- 수원문화원(031-244-2161~3)
- 성남문화원(031-781-1020)
- 의정부문화원(031-872-5678)
- 안양문화원(031-449-4451)
- 부천문화원(031-651-3739)
- 광명문화원(031-618-5800)
- 평택문화원(031-655-2184)
- 동두천문화원(031-865-2923)
- 안산문화원(031-480-9823~5)
- 고양문화원(031-963-0600)
- 과천문화원(031-504-6513)
- 구리문화원(031-557-6383)
- 남양주문화원(031-592-0667)
- 오산문화원(031-375-7755)
- 시흥문화원(031-315-6465)
- 군포문화원(031-397-0195)
- 하남문화원(031-795-1020)
- 용인문화원(031-335-2033)
- 파주문화원(031-941-2425)
- 이천문화원(031-635-2316)
- 안성문화원(031-673-2625)
- 김포문화원(031-984-6550)
- 양주문화원(031-840-6467)
- 여주문화원(031-883-3450)

- 화성문화원(031-353-6330)
- 광주문화원(031-764-0686)
- 연천문화원(031-834-2350)
- 포천문화원(031-532-5055)
- 가평문화원(031-582-2016)
- 양평문화원(031-771-3866)
- 의왕문화원(031-456-4994)

강원도

- 강원도지회(033-255-5105)
- 춘천문화원(033-254-5105)
- 원주문화원(033-764-3794)
- 강릉문화원(033-648-3014)
- 동해문화원(033-531-3298)
- 태백문화원(033-553-3161)
- 속초문화원(033-632-1231)
- 삼척문화원(033-573-2882)
- 홍천문화원(033-434-2080)
- 횡성문화원(033-343-2271)
- 영월문화원(033-373-3434)
- 평창문화원(033-332-3546)
- 정선문화원(033-563-5471)
- 철원문화원(033-452-6235)
- 화천문화원(033-442-2607)
- 양구문화원(033-481-2681)
- 인제문화원(033-461-6678)
- 고성군문화원(033-681-2922)
- 양양문화원(033-461-6678)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043-733-5588)
- 청주문화원(043-256-3624)
- 충주문화원(043-847-3906)

‘지역문화’가 궁금하면 노크하십시오

- 제천문화원(043-646-3646)
- 청원문화원(043-257-2858)
- 보은문화원(043-544-2314)
- 옥천문화원(043-733-5588)
- 영동문화원(043-742-2215)
- 진천문화원(043-533-2744)
- 괴산문화원(043-832-3588)
- 음성문화원(043-872-4084)
- 단양문화원(043-423-0701)
- 증평문화원(043-836-3400)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041-667-0417)
- 천안문화원(041-575-3004)
- 공주문화원(041-852-9005)
- 서산문화원(041-669-5050)
- 논산문화원(041-732-2395)
- 금산문화원(041-754-2724)
- 부여문화원(041-835-3318)
- 서천문화원(041-953-0123)
- 청양문화원(041-943-4774)
- 홍성문화원(041-632-3613)
- 예산문화원(041-335-2441)
- 태안문화원(041-674-2192)
- 당진문화원(041-354-2367)
- 대천문화원(041-934-3061)
- 온양문화원(041-545-2222)
- 조치원문화원(041-865-2411)
- 아우내문화원(041-564-1022)
- 성환문화원(041-581-2101)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063-287-5509)

- 전주문화원(063-288-7500)
- 군산문화원(063-451-2138)
- 익산문화원(063-835-0120)
- 정읍문화원(063-532-8723)
- 남원문화원(063-633-1582)
- 김제문화원(063-547-4659)
- 완주문화원(063-263-4335)
- 진안문화원(063-433-1674)
- 무주문화원(063-324-1300)
- 장수문화원(063-351-5349)
- 임실문화원(063-642-2211)
- 순창문화원(063-653-2069)
- 고창문화원(063-564-2340)
- 부안문화원(063-583-2101)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062-223-0019)
- 목포문화원(061-244-0044)
- 여수시문화원(061-682-5388)
- 순천문화원(061-723-4563)
- 나주문화원(061-332-5115)
- 광양문화원(061-763-0496)
- 담양문화원(061-383-6066)
- 곡성문화원(061-362-0890)
- 구례문화원(061-782-8802)
- 고흥문화원(061-835-5245)
- 보성문화원(061-852-2629)
- 화순문화원(061-374-3333)
- 장흥문화원(061-863-6362)
- 강진문화원(061-433-7373)
- 해남문화원(061-533-5345)
- 영암문화원(061-473-2632)

- 무안문화원(061-452-8648)
- 함평문화원(061-322-0505)
- 영광문화원(061-351-3255)
- 장성문화원(061-392-1796)
- 완도문화원(061-552-4834)
- 진도문화원(061-542-1108)
- 신안문화원(061-242-8131)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054-556-5234)
- 포항문화원(054-242-4711)
- 경주문화원(054-743-7182)
- 김천문화원(054-434-4336)
- 안동문화원(054-859-0825)
- 구미문화원(054-482-5422)
- 영주문화원(054-631-3300)
- 영천문화원(054-334-3030)
- 상주문화원(054-535-2339)
- 문경문화원(054-555-2571)
- 경산문화원(054-815-0593)
- 군위문화원(054-383-2003)
- 의성문화원(054-834-5048)
- 청송문화원(054-873-2527)
- 영양문화원(054-682-1378)
- 영덕문화원(054-734-2456)
- 청도문화원(054-371-2514)
- 고령문화원(054-954-2347)
- 성주문화원(054-933-0700 ~ 1)
- 칠곡문화원(054-974-0450)
- 예천문화원(054-654-3833)
- 봉화문화원(054-673-2350)
- 울진문화원(054-783-2270)

- 울릉문화원(054-791-0245)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055-2293-1186)
- 창원문화원(055-284-8870)
- 마산문화원(055-243-5222)
- 진주문화원(055-746-5001)
- 진해문화원(055-544-8880)
- 통영문화원(055-645-7755)
- 사천문화원(055-833-3163)
- 김해문화원(055-336-2646)
- 밀양문화원(055-352-3010)
- 거제문화원(055-681-2603)
- 양산문화원(055-386-0890)
- 의령문화원(055-573-2034)
- 함안문화원(055-583-2290)
- 창녕문화원(055-533-3777)
- 고성문화원(055-672-3805)
- 남해문화원(055-864-6969)
- 하동문화원(055-884-3929)
- 산청문화원(055-973-0977)
- 함양문화원(055-963-2646)
- 거창문화원(055-942-6166)
- 합천문화원(055-931-2401)

제주도

- 제주도지회(064-722-0203)
- 제주문화원(064-722-0203)
- 서귀포문화원(064-733-3789)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 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해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의 교류추진을 앞전해 드립니다.

편집후기

이제 3월입니다. 새 봄입니다. 주위에서 생명이 움트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산에라도 올라 물오르는 나무와 꽃망울을 바라보고 싶고 조용한 산사에 누워 구슬피 우짓는 새소리에 대꾸도 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황톳길을 자전거로 달리거나 고층빌딩 사이를 목적 없이 걷고도 싶구요. 정말 봄이 왔나 봅니다. 그러나 월간 우리문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군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지역문화종합지인 <월간 우리문화>가 이번 호부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달에 한번씩 격월간으로 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월간 우리문화는 지령 160호를 맞고 있습니다. 비록 매달 독자들을 찾아뵙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양질의 문화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문화>는 앞으로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월간으로 복원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문화원 임직원과 독자 제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敍)

정기구독안내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곳곳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